

Vol.85 2023. 11

FMB Missio D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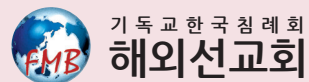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특집 : 엔데믹 이후의 선교
FMB, SRDC, WMTC 선교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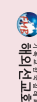
Missio Dei
Vol.85 2023. 11



- + Missio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 Missio Dei는 FMB와 FMB 산하기관인 SRDC, WMT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합 선교 저널입니다
- + 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당대에 주님이 다시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 발행인 | 주민호 • 발행처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발행일 2023년 11월 9일 • 홈페이지 www.fmb.or.kr
 • 주 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번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 연락처 | Tel. 02-2619-2202-4 Fax. 02-2619-8797 E-mail. fmbkorea@fmb.or.kr



Contents



- 제목 :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하시네
- Photographer : 조환준 선교사(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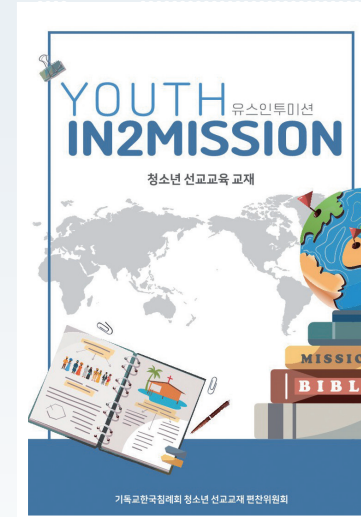
Missio Dei 표지를 장식할 생생한 선교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인물, 풍경, 사역 등)

* 파일명을 '이름-사진제목'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B Missio Dei

머리글	03
지부장 연례회의	04
지부별 모임	10
엔데믹(Endemic) 시대에 FMB 사역 현황	16
남아 있는 중국 선교	38
뉴배티스트 비전캠프	52
제5회 선교포럼	58
제2차 Mission Summit	64
FMB MK 캠프	66
MUT-pro. 소감	68
사진으로 보는 MUT-pro.	74
MUT-senior 소감	76
사진으로 보는 MUT-senior	84
인턴 선교사 훈련소감문	86
선교사 이야기	90
기관별 사역 일정(FMB, SRDC, WMTC)	96
in2mission 안내	98

청소년 인투미션 교재 발간



목적 | 한국교회 다음세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선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

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용도 | 교회 수련회, 교회 혹은 학교 선교주간, 단기선교 훈련프로그램, 공과교재, 학교 선교 수업 등

특징

- 1) 12과로 구성되어 필요한 과를 선택하여 학습 가능
- 2) 침례교해외선교회에서 제공하는 선교 최신자료 사용
- 3) 각 과별로 3가지 이상의 학생 활동자료를 수록해 활동적인 교육이 가능



• 본 교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청소년 선교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제작했습니다.
• 가격은 2만원(교사용 바인더)이며, 문의 및 구매는 세계선교훈련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42-828-3371, wmtc94@gmail.com

[FMB, SRDC, WMTC는 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복한 동행 - 후원의 종류

- 재정후원 : 각 기관들의 사역을 위한 일반 후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헌금
- 중보기도 : 분기별로 소식지를 활용하여 기관들과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
- 재능기부 : 기타 행정 지원 및 MK 교육, 돌봄지원

📍 행복한 동행 - 재정후원방법

- 각 단체별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일시 후원, 정기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침례교해외선교회 : 256-890033-76504 (하나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전략연구개발원 : 990-007953-940 (하나은행, 기독교한(선교전략))
- 세계선교훈련원 : 461301-04-598321 (국민은행, 세계선교훈련원)

주여, 때가 왔습니다.

이병문 선교사 (WMTC 부원장)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지난 여름의 태양은 무서웠고, 폭풍우도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주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주여, 지난 몇 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지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또다시 평안의 때가 왔으니,

이제 코로나-19의 망령을 아득한 기억 속으로 밀어내게 하소서!

주여, 때가 왔습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을 떨어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 하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선교지마다 밀어놓았던 부흥을 다시 일으키소서!

수많은 젊은 일꾼을 불길같이 일으키시어 다음 세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교회마다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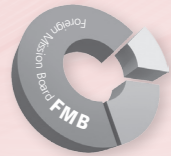
선교의 푸른 계절, 위대한 시대가 다시 오게 하소서!

주여, 때가 왔습니다.

주의 선교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함께 하는 FMB



지부장 연례회의 사람 이해를 통한 소통과 협력



지난 2023년 9월 20(수)~22(금)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에서 열린 2023 지부장 연례회의는 첫 번째로, MBTI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 이해의 폭을 넓혀 소통과 협력의 역량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이사님들과 식사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선교 현장과 지역 교회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는, 각 지부의 감사한 일들과 당면한 과제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기회가 있었다. 네 번째는, FMB 2030 비전에 따라 나아갈 방향과 선교 행정 정책의 적용에 대한 본부의 행



정소통과 훈련원(WMTC)의 훈련안내 그리고 전략연구개발원(SRDC)의 나눔이 있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고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로 아쉬움은 있었으나 강원도 평창의 아름다운 산악지역을 산책하며 고국의 풍경과 함께 지부장들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MBTI : 사람 이해를 통한 소통과 협력 증대

이번 지부장 연례회의의 가장 큰 목표는 지부장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해 MBTI 전문가인 유형재 목사님(용인 백향목교회)을 강사로 초빙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지부장과 사모님들 그리고 본부의 리더십, 훈련원과 SRDC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MBTI Form Q 검사를 실시를 하였다. 검사방법은 먼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강사인 유형재 목사의 1분짜리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시청하고 그 안내를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 지부장 연례회의의 참석자 총 35명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부장들은 한국과 시차가 다른 나라에 머물며 자신의 현장 사역과 모임 및 출장 등으로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검사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조차 어려워 했다. 강사 유형재 목사는 지치지 않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안내를 통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지부장 회의 이전에 검사를 받게 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 강의를 진행하였다.

MBTI 성격검사는 성격유형의 종류를 16가지로 분류한다. 유형재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선교사의 성격유형을 사용하시는데 16가지 성격유형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었으며 더 좋은 성격이나 나쁜 성격은 없다고 한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비밀은 신묘막측해서 인간이 그 성격유형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만들어 준 성격 유형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개인의 삶과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개인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교사들이 다양한 성격 유형과 만날 때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과 관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같은 성격 유형의 선교사들을 다음의 성격 분포도와 같이 자리를 배치시키고 강의 를 진행하는 동안 각 유형의 특성에 따른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적으로 강사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유형별 반응의 차이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이나 질문 에 반응하는 방법, 태도, 방향 등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이상하 게 생각했던 성격 유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장단점이 존재하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귀한 배움이 있었다. 지부장 들의 성격유형 분포도를 보면 감각형과 사고형이 많고 감정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어세스타 성격 심리 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성격 유형은 ISTJ(13.5%)와 ESTJ(12.8%)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ENFP(10.0%)가 많다. FMB 지부장 및 리더십 그룹의 감정형은 한국인의 평균보다 훨씬 적은 수이고 본부 리더 십 그룹에 감정형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또한 성격 유형 검사 강 의는 선교사가 갈등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이 안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각 성격 유 형별로 열등 기능이 작동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가를 알게 되면 지부장이 각 지부의 선교사를 섬길 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MBTI 심리검사 도구로 사람을 다 이해할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것에 대한 바른 대응과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번 지부장 연례회의에 이 강의를 마련한 것은 지부장들의 사람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가 있었다. 더 나아가 지부 회 원들의 요청이 있다면 지부모임이나 세미나를 통해 MBTI 성격유형 및 심리검사와 강의 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부회원들 간의 성격이해를 돕고 협력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STJ 내향적 감각형	ISFJ 내향적 감각형	INFJ 내향적 직관형	INTJ 내향적 직관형
8명(22.86%)	1명(2.86%)	0	3명(8.57%)
ISTP 내향적 사고형	ISFP 내향적 감정형	INFP 내향적 감정형	INTP 내향적 사고형
3명(8.57%)	0	1명(2.86%)	0
ESTP 외향적 감각형	ESFP 외향적 감각형	ENFP 외향적 직관형	ENTP 외향적 직관형
2명(5.71%)	0	1명(2.86%)	2명(5.71%)
ESTJ 외향적 사고형	ESFJ 외향적 감정형	ENFJ 외향적 감정형	ENTJ 외향적 사고형
9명(25.71%)	3명(8.57%)	1명(2.86%)	1명(2.86%)

(표) FMB 지부장 및 리더십 그룹의 성격유형 분포도

각 지부의 현황과 당면과제들

최근 코로나 이후 선교 지형의 변화 가운데 각 지부는 다양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 며 그 과제들을 풀어 나가려는 노력에 대해 지부장들의 나눔이 있었다. 여러 지부들은 협 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나누었다. 카자흐스탄 지부는 현지 총회와 연합과 동역 관계를 더 원활히 이루고 지부 연합사역의 활성화 및 사역의 이 양을 위해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성장 과제를 나누었다. 키르기스스탄 지부는 전 회 원이 힘을 다해 사역하고 있으며 기도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튀르키예 아제르바 이잔 지부는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히려 지부가 연합하여 지진 구호사역을 감당한 귀한 열매를 나누었다. 일본 지부는 본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일본사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MUT-Pro(선교사 연장훈련)을 일본의 현장과 사역 형태의 상황에 따른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지부장의 역할이 활성화되며 본부와 소통이 원활해 졌고 지부 안에서 회원들간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 침례교단과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감사의 나눔을 풀어 놓았다.

국내 이주민 사역의 필요에 따라 국내 외국인 지부의 사역자 수가 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지부는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사역과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의 외국인 들을 섬기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다보니 전통적인 해외거주 선교사에 대한 개념때문에 국내 거주한다는 점에서 후원이 중단되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후원

구조의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역 대상이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머무는 것이 아닌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역의 대상과 범위를 상시 조정해야하는 도전에 처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중화지부는 대부분의 선교사가 비자발적 철수로 인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속인주의 정책을 실행하여 중국인이 있는 곳은 어디나 지역에 관계 없이 사역을 시작했다. 중화지부에 속하여 사역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역의 협력과 재배치가 당면과제이다.

말레이시아 지부는 다양한 언어와 종족으로 인해 언어권 별로 세분화된 전략과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지부는 동일 나라안에서도 창의적 접근지역과 열린 지역이 있어서 접근법과 사역의 형태가 다양하다. 전제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협력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섬나라의 지리적 특성때문에 회원들간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다. 중동지부는 다른 지역에서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속인주의 정책을 허락하여 중동지부에 소속되고 전략적 협력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지부는 난민과 동유럽 인구의 이동으로 다민족 사역의 기회가 있고 단기사역자의 활용이 요청되며 유럽을 세분화하여 종족별 종교적 성향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나누었다.

지부 나눔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과제는 선교사의 노령화로 인한 새로운 사역자의 수급이다.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중동 지부 등이 특히 강조했으나 거의 모든 지부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과제는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창의적 접근지역의 지부들이 비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로 일부 지부들은 지부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리적인 환경, 재정적 지원의 부족, 지부회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받지 못해서 각 현장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나누는 정도로 그쳤지만 작금에 당면한 문제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사님들과의 대화

이번 지부장 연례회의에 이사장님과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참석하여 지부장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해외선교회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분위기가 지부장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이 보여 감사했다. 이사님들은 지부장들의 감사 인사와 바램과 요청을 청중하고 더 돕고 힘을 보태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투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 지부장들은 이사님들을 통해서 최근 한국의 지역 교회의 현실과 교회들의 선교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교회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부장들은 해외선교회의 인사 관리 규정 및 현장 사역 내규의 세부적이고 강력한 지침의 필요를 요청하기도 했다.

FMB 방향과 행정소통 및 훈련안내

주민호 회장은 FMB 2030 비전 선포 기도문을 지부장들과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선교”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특히 2030 비전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 정신, 지속적 성장, 소통과 협력 3가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FMB로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FMB와 지역교회와 선교지 공동체와 이를 섬기는 선교사 개인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가는데 가치를 부여하는 해외선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선교사의 책무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인이아니며 종된 자이므로 재정과 시간 사용에 대한 책무를 지켜야 함을 주지시켰다. 행정총무 신갈렘은 올해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새로운 행정 지침들을 지부장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선교축제, 선교포럼, 은퇴감사 예배 등의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기도요청을 했다. 훈련원(WMTC)의 이병문 부원장은 디아스포라 선교사훈련, 파송전 장단기 선교사 훈련, MUT-Pro훈련, 일본선교사 MUT-Pro 훈련, MUT-Senior훈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선교사 포럼, 선교교육과 동원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략개발연구원(SRDC) 황권상 부원장은 전략개발연구에서 FMB의 정책 발의를 위해 2023년에 진행한 연구논문과 2024년에 진행될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2023지부장 연례회의를 위해 먼저는 지부장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했으며 본부에서 리더십 그룹과 간사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의 준비가 있었다. 더불어서 늘사랑교회(송호철목사)는 지부장들에게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하여 주었고 오산침례교회(김종훈목사)는 식사 지원을 하여 지부장들의 모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2박 3일간의 짧은 모임이었으나 내년도 FMB의 성장에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함께하는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방향 설정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다.



지부별 모임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FMB 사역”

지부별 모임 - 다시 펼쳐진 날개들, 다시 살아난 가지들

지난 4년여 동안 전 인류는 전에 없던 변화의 물결을 맞닥뜨려야만 했다. 코로나 바이러 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몇 년 동안 마스크가 모든 이들의 입을 덮어 사람들의 얼굴과 마치 하나인 듯 보였고,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어 앉고자 하면 가림막이 사이에 놓여있었으며 여러 명이 함께 모이 는 것은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던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고, 반대로 우리의 모임들을 향한 도 저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바이러스의 방해는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만남들은 이제 더 이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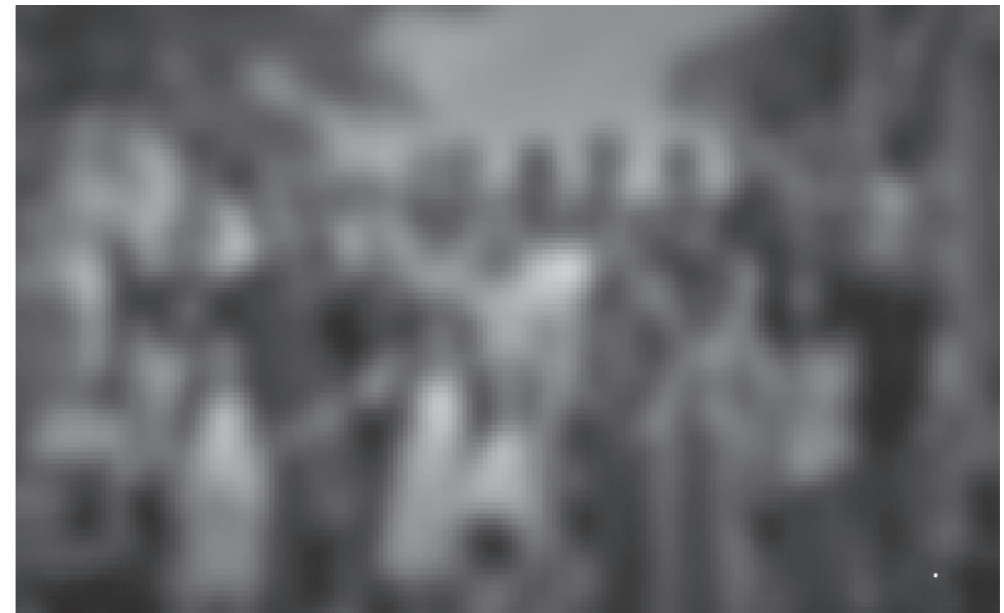
FMB는 주민호 회장의 취임 이래로 “비전 2030”을 선포하였고, 각 지부들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꾸준히 여러 모양으로 모임과 나눔을 지속해 왔었다. 이제 코로나의 구속에서 자 유로워진 FMB의 각 지부들은 대면모임을 활성화하며, 그 사역의 날개들을 다시 활짝 펼 쳐 나가고 있다.

사역과 섬의 하모니 - 카자흐스탄 지부 / 김진남 지부장

카자흐스탄 지부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알마티에서 지부 모임을 가졌다. 이번 지부 모임은 임시총회를 겸해서 열렸는데, 사역과 함께 충분한 교제와 섬을 가지며 말씀으로 인한 충전도 동시에 받는 시간이었다. 첫째 날은 모임 장소에 모여 그

동안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 놓으며 교제를 나누었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영 적인 공급을 충족시켰다. 둘째 날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의 강의와 저녁 집 회로 풍성하게 채워졌는데, 낮에는 테니스와 수영 등 체육활동을 통해 영적인 건강을 돌 볼 뿐 아니라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채우기도 하였다. 보통의 이러한 집회에서는 계속 사역이야기만 하다가 교제의 중요함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카자흐스탄 지부는 이번 모임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셋째 날에는 침볼락 에서 조별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묵상하였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동역자들간의 멤버십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셋째 날 저녁 시간에는 전체 모 임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역적 방향과 엔데믹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이는 카작지부의 선교사들이 향후 그려나갈 사역적 작품들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 었다.

마지막 넷째 날에는 임시총회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2024년의 사역적 계획들을 세워나아갈 겨울 모임의 일정과 강사 및 장소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결의된 중요 사항 중 하나는 옆 나라 지부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전체 선교사 모임을 추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먼저, 하나로 존재하던 ‘중앙아시아 지부’가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부로 나뉘어지던 2000년도에 “이번에 나뉘어지더라도 격년으



로 중앙아시아 전체 모임을 실시한다”고 했던 결정이 실행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미가 크다 할 것이다. 더불어, FMB의 ‘VISION 2030’이 단순히 각각의 지부내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연합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가질 때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결정은 엔데믹 이후에 더욱 급변하는 선교지 상황에 적합한 움직임과 대응을 하려고 하는 FMB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하나로! - 캄보디아 지부 / 오영식 지부장(현, 조환준 지부장)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던 캄보디아 지부 모임은 말 그대로 하나되게 하는 시간이었다. 캄보디아의 국기는 사람이 손으로 따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겨질 만큼 복잡하다. 그동안 캄보디아 지부의 상황도 그와 비슷하게 여러 어려움이 겹친 모습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지부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반목해 왔으며,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영식 지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회장님이 오시면 합치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고백을 하게 하였고, 회장이 지부방문 초청에 응하도록 만드셨다.



FMB 본부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번 지부 모임을 세심하게 준비하였다. 주민호 회장은 서로를 향해 닫혀있던 캄보디아 선교사들의 마음 문을 열기위해 기도와 더불어 여러 모양의 준비를 하였다. 먼저, FMB의 문승호 국제사역 디렉터가 지부 모임이 일주일 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캄보디아 사역자들의 사역지를 직접 방문하고, 선교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교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전 작업 덕분에 캄보디아 선교사들의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고 지부 모임 현장에서 새출발을 위한 중요 안건이 잘 다뤄질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조수동 이사(동상제일교회) 부부가 함께 방문하도록 초청한 것이다. 조수동 이사와 하남진 사모는 선교사 부부를 별도로 만나 기도와 상담을 해 주었는데, 밤을 지새며 듣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준 두 분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수였음이 확인되었다.

프놈펜에서 모인 이번 캄보디아 지부 모임은 총 42명이 함께하였는데, 캄보디아의 선교사 30여명과 6명의 MK가 참석하였다. 주민호 회장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가?’라는 나눔을 통해 다시 연합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캄보디아 지부의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근거한 사역을 강조하였다. 함께하였던 조수동 이사는 “이번 캄보디아 지부 모임은 우리의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흠어놓으려 해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지부의 앞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하나로 합쳐진 캄보디아 지부는 오영식 지부장에 이어 조환준 선교사가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섬기게 되었으며, 조수동 이사는 앞으로 캄보디아 지부 모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쓸 것을 약속하였다.

새로운 도약! - 중화지부 / 원경준 지부장

중화지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대만의 타오위웨워면교회에서 2023년도 지부 모임을 진행했다. ‘새로운 도약과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로 여러 특강들이 함께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총 5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서 선교사는 19유닛, MK 6명, 외부강사 및 지원팀이 12명이었다. 이번 중화지부 모임에서는 총 2회의 특강이 있었는데, 주안대학교 김광성 교수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 중어권 선교사 협의회 강철민 대표의 ‘중어권 사역의 실재’라는 특강을 통해 중화지부의 속인주의 정책 시행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틀간의 저녁집회 강사로는 FMB 이사로 사역중인 디딤



돌 교회의 임성도 목사가 수고하였고, 경건회에서는 포항 새생명교회의 김창호 목사, 폐 회예배에서는 지구촌교회 해외선교부의 이명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모임은 중화지부가 엔데믹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밑바탕이 되었는데, 학문적인 특강들과 영적인 공급을 위한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걸음들을 위한 지부 총회까지 모든 순서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번 지부모임을 통해 논의가 된 향후 사역에 적용할 것들은 ‘속인주의 정책에 따른 조직개편’, ‘중화권 선교에 대한 전략’, ‘중화권 네트워크 구성’, ‘규정 개정안’으로 정리되었다. 사역에 있어서 여러모로 의미있는 논의와 강의가 함께한 모임이었기에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욱 기대되는 중화지부였다.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FMB의 사역 - “다시 살아난 가지들”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각 지부들의 대면모임은 2023년에 진행된 그 현황만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 지부는 올해 7월의 지부모임 이전에 1월에도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지부와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지부가 1월에, 4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된 유럽지부, 5월에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지부모임, 6월에는 경

기도 안성에서 인도네시아 지부총회와 파나마시티에서 중남미 지부총회, 울릉도에서 2박 3일로 진행된 국내지부의 수양회, 7월에는 나가노현에서 일본지부총회, 9월에는 튀르키예에서 아프리카지부 총회가 있었다.

코로나는 분명 선교사역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변화를 가져왔다. 언택트(untact)를 넘어선 온택트(ontact)의 활성화, 각종 교육 훈련의 온라인화 등은 사역에 있어서 지역적인 장벽을 넘게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중에 기본은 대면 모임이기에 엔데믹을 기점으로 각 지부들의 모임은 다시 활발해져 가고 있다. 또한 지난 4년여 동안 변화된 많은 것들은 분명 선교에 있어서 장애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자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 더욱 날개를 펼쳐서 함께하는 선교를 이루어갈 우리 FMB의 지부들을 기대해 본다.





엔데믹(Endemic) 시대에 FMB 사역 현황



| FMB(T국/SRDC부원장)
황이브라힘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는 지난 2019년 9월 시작하여 3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Pandemic) 기간을 지나 엔데믹(Endemic, 풍토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과 생활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팬데믹이 야기한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며 새로운 사역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이에 본부 차원에서 엔데믹 시대에 FMB 사역자들의 사역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현장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설문지는 전략연구개발원에서 개발하였고,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현장 연구를 위해서 먼저 본부에서 설문 취지와 설문지를 공문으로 각 지부 지부장에게 전달했고, 지부장이 해당 지부 회원들에게 보내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장 연구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코딩 과정을 거쳐 IBM사에서 개발한 통계 처리 전용 프로그램인 SPSS Ver. 29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데이터 분석

그림 1은 설문 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보여준다. 응답자 160명 중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120(75.0%)과 40(25.0%)이었다. 본부 통계에 의하면, 본부와 파송 대기 사역자와 국내 외국인 사역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국내에 체류 중인 사역자를 제외한 사역자 수는 670명이다. 이들을 연구 모집단을 봤을 때, 설문지 응답률은 23.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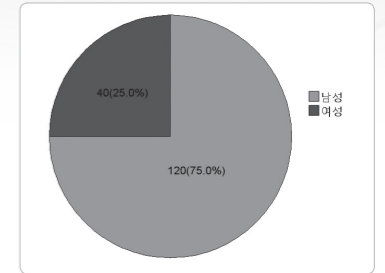


그림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비율

그림 2는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별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0대의 응답 비율이 51.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60대, 40대와 30대의 응답 비율은 각각 26.9%(42), 16.3%(26), 3.8%(6)이다. 20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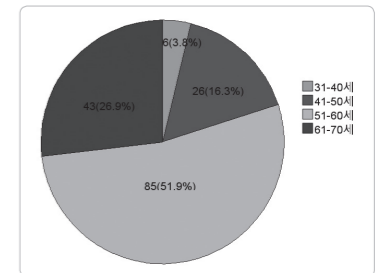


그림 2.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비율

그림 3은 설문 응답자의 사역연수별 비율을 보여준다. 사역 연수가 21-25년인 비율이 23.8%(38)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6-20년(21.3%), 11-15년(18.8%), 26-30년(13.8%), 6-10년(11.3%), 5년 이하(7.5%), 31년 이상(3.8%) 순으로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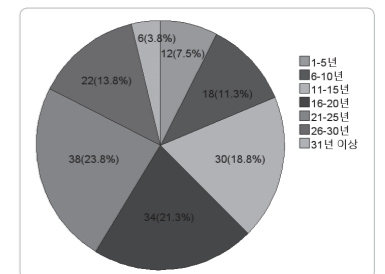


그림 3. 설문 응답자의 사역연수별 비율

표 1은 FMB 소속 지부와 권역별 사역자 수, 응답자 수와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응답률은 지부와 권역으로 나누어서 표시하였다. 결론은 2이다. 지부별 응답 비율을 보면, 유럽 지부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부는 NK지부로 응답 비율이 0.6%이었다. 권역별 응답 비율을 보면, 동서남아 권역(43.8%), 중앙아시아-중동 권역(21.3%), 유럽 권역(21.3%), 동북아 권역(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사역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동서남아 권역, 중앙아-중동 권역과 연합 권역은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왔지만, 동북아 권역만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권역	소속 지부	지부별 사역자 수	권역별 사역자 수	지부별 사역자 비율	권역별 사역자 비율	지부별 응답자 수	권역별 응답자 수	지부별 응답 비율	권역별 응답 비율
동북아	중화 지부	50	160	7.5	23.9	8	20	5.0	12.5
	NK 지부	17		2.5		1		.6	
	몽골 지부	21		3.1		2		1.3	
	일본 지부	30		4.5		7		4.4	
	국내 외국인 선교 지부	42		6.3		2		1.3	
중앙아-중동	카자흐스탄 지부	40	132	6.0	19.7	9	34	5.6	21.3
	우즈베키스탄 지부	23		3.4		2		1.3	
	키르기스스탄 지부	21		3.1		4		2.5	
	튀아 지부	29		4.3		11		6.9	
	중동 지부	19		2.8		8		5.0	
동서남아	필리핀 지부	74	252	11.0	37.8	12	70	7.5	43.8
	말레이시아 지부	12		1.8		3		1.9	
	인도네시아 지부	30		4.5		4		2.5	
	베트남 지부	27		4.0		7		4.4	
	인도차이나 지부	46		6.9		15		9.4	
	캄보디아 지부	31		4.6		15		9.4	
	서남아 지부	32		4.8		14		8.8	
연합	유럽 지부	70	126	10.4	18.8	19	34	11.9	21.3
	아프리카 지부	36		5.4		10		6.3	
	중남미 지부	20		3.0		5		3.1	
연합	전체	670	670	100.0	100	158	158	98.8	100

표 1. 소속 지부와 권역별 사역자 수와 설문 응답자 비율

표 2는 사역 대상자들의 주요 종교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교 비율이 32.5%(52)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불교 비율은 29.4%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은 가톨릭(13.1%), 무교(5.6%), 힌두교(5.0%), 정교회(5.0%), 정령승배(4.4%), 기독교(3.1%), 신도(2.5%), 유대교(1.3%), 도교(1.3%), 공산주의(1.3%), 한인 디아스포라(1.3%) 순서로 높았다. 여기서 기타(1.9%)에는 민간 신앙, 조상숭배가 포함되었다.

사역 대상자의 주종교	반응		케이스 중 %	사역 대상자의 주종교	반응		케이스 중 %
	응답자 수	퍼센트			응답자 수	퍼센트	
이슬람교	52	30.2%	32.5%	유대교	2	1.2%	1.3%
불교	47	27.3%	29.4%	공산주의	2	1.2%	1.3%
힌두교	8	4.7%	5.0%	기독교	5	2.9%	3.1%
가톨릭	21	12.2%	13.1%	신도	4	2.3%	2.5%
정교회	8	4.7%	5.0%	한인 디아스포라	2	1.2%	1.3%
정령승배	7	4.1%	4.4%	도교	2	1.2%	1.3%
무교	9	5.2%	5.6%	기타	3	1.7%	1.9%
전 체					172	100.0%	107.5%

표 2. 사역 대상자의 주종교

표 3은 응답한 사역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는 한 사역자가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FMB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역은 제자 양육(60.6%), 교회 개척(50.6%)과 전도(47.5%)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사역(한국어, 영어, 컴퓨터, 영상 등)(32.5%), 지도자 훈련 사역(32.5%), 신학교 사역(19.4%) 비율이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난민 사역(18.1%), 지역 개발 사역(12.5%), 디아스포라 한인 사역(11.3%), 사회 복지 사역(고아원, 양로원, 병원 등)(10.6%) 순으로 높았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캠퍼스 사역(5.6%), 국내 외국인 사역(1.9%), 의료 사역(1.3%), 상담 사역(1.3%), 미디어 사역(1.3%), 문서 사역(0.6%), 기독교 학교 사역(0.6%)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타 사역(1.9%)에는 선교 동원, 어린이 사역과 무슬림 대상 기숙사 사역이 포함되었다.

주사역	반응		케이스 중 %	주사역	반응		케이스 중 %
	응답자 수	퍼센트			응답자 수	퍼센트	
전도	76	15.3%	47.5%	난민 사역	29	5.8%	18.1%
제자 양육	97	19.5%	60.6%	캠퍼스 사역	9	1.8%	5.6%
교회 개척	81	16.3%	50.6%	국내 외국인 사역	3	0.6%	1.9%
지도자 훈련	52	10.4%	32.5%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	18	3.6%	11.3%
신학교	31	6.2%	19.4%	의료 사역	2	0.4%	1.3%
기독교 학교	1	0.2%	0.6%	문서 사역	1	0.2%	0.6%
교육 사역	52	10.4%	32.5%	상담 사역	2	0.4%	1.3%
사회 복지	17	3.4%	10.6%	미디어 사역	2	0.4%	1.3%
지역 개발	20	4.0%	12.5%	기타	5	1.0%	3.1%
전 체					498	100.0%	311.3%

표 3.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종류들

그림 4는 응답한 사역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사역 환경의 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반 이상(53.1%)이 사역 환경의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4.4%이었다. 사역 환경의 변화를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22.5%이었다. 이는 대략적으로, 사역자의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역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역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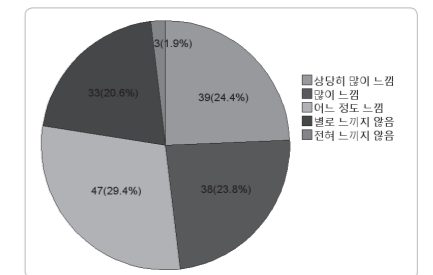


그림 4. 팬데믹 이후 느끼는 사역 환경의 변화 정도

22.5%이었다. 이는 대략적으로, 사역자의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역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역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역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느끼고 있는 사역 환경의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물가 폭등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사역자들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이 커졌다. 현지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빈곤해져서 잘 모이려 하지 않고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이 물량 공세로 접근함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신앙이 쉽게 변질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현지인들의 심각해진 가정경제 위기로 인해 젊은이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지인들 사이에 빈부, 정보 기술, 교육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어떤 사역자는 달러의 상승과 현지화의 하락으로 인해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율로 인해 화폐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젊은이들이 돈 벌러 다른 나라로 많이 가서 직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다른 사역자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스텝 구하기 힘들어졌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인해 사역을 현상유지가 어려워졌다. 재정자립이 되던 현지교회들 재정 어려움이 생겼다. 난민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면서 시간을 쉽게 못 내서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비자 받기가 힘들어졌다. 어떤 이는 전세계적으로 자국중심주의 강해져서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하였다. 어떤 사역자는 자신이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지를 떠나 있는 사이에 비자가 만료되어 복귀가 불가능 해졌다. 어떤 이는 비자 및 행정서류의 어려움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까다로워진 비자 발급의 문제에 더해 행정법규 개정의 문제도 언급하였다. 다른 이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비자를 받는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주변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셋째, 많은 현지인들이 공예배에 오지 않고 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선호하는 것이다. 어떤 사역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모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어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도 없고 모임이 없는 기간으로 오랫동안 보낸 후에 많은 주의 자녀들이 마귀의 권세에 결박되어 고통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욱 절심함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팬데믹 중에 교회와 신학교

가 타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인원이 많이 줄고 예전과 같은 열정이 조금 사그라졌다고 하였다. 성도들의 영적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교회 예배와 사역에 참여도가 낮아졌다. 어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다수의 어른 교인들이 교회로 다시 못 돌아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어떤 이는 팬데믹 기간동안 미디어/인터넷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던 어린이/청소년들의 생각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황과 비슷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는 문제도 언급하였다.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었다. 소그룹모임 참석이 약화되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약해졌다. 비대면으로 모임이 형성되어지면서 대면 집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대면예배로 바뀌어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교회 정착이 소원해진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관계형성 부분도 조금 더 어려워졌다. 현지인들과 의사소통면에서 페이스북과 줌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영적 관심의 하락으로 인한 접촉과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 미디어 관심이 높아졌다. 오프라인 공식적인 모임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예배 출석 인원 감소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넷째, 사람 접촉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영혼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모임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 성도 간의 교제가 방해를 받고 있다.

다섯째, 사역대상자들이 현지를 떠나고 있다. 유럽에서 한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역자는 “사역대상자인 유학생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고, 교회를 떠나서 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는 “많은 제자들과 현지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타지키스탄을 떠나 러시아로 가고 있어요.”라고 하며 사역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여섯째, 교회 개척을 위한 합법적인 집회 허가가 더욱 어려워졌다. 어떤 이는 반개종법이 통과되면서 심한 핍박으로 사역이 위축되었다고 하였다. 종교적 탄압, 현지정부종교정책, 타종교의 위협과 핍박, 민족주의 강화로 인한 종교탄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보다 정부의 간섭이 더 심해졌다. 종교 근본주의 부상에 따른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곱째, 선교후원자 및 후원교회가 줄어들어 후원금이 감소하였다. 후원교회들이 약화되고 있다. 여덟째, 국외 선교동원이 위축되었다. 아홉째, 더 많이 개인주의화 하는 사회현상이 발생하였다. 열째, 치안이 불안해졌다. 열한째, 교회에 대한 편견이 강해졌다. 열두째,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열셋째, 모든 방면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팬데믹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 사역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어떤 이는 팬데믹과 상관없이 교회개척사역이 변함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변화를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지진 이후에 이재민들의 이동, 대학생들의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대부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재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팬데믹 중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전과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에 있어서 이전과 같은 모멘텀은 조금 약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림 5는 팬데믹이 사역에 미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30.6%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사역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5.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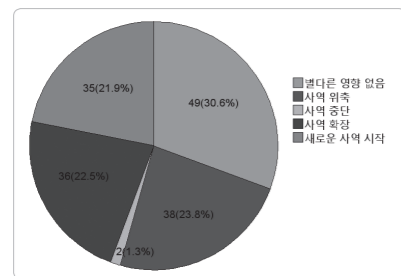


그림 5. 팬데믹 이후에 사역상의 변화

이는 팬데믹이 사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사역이 확장되었다고 사람은 22.5% 정도 되었다. 응답자의 21.9%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도전을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삼은 사역자들의 비율이 44.4%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사역이 많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어떤 사역자는 비자 문제로 사역이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사역지에서 출국한 후에 비자 만료로 현장 복귀가 불가능 해졌다고 하였다. 둘째, 일차적으로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공예배 참석 인원이 많이 줄었다. 팬데믹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관계로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출석과 봉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안일

하게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가정 안에서 활동이 증가되었다. 어떤 이는 제자들이 사역을 떠나면서 모임 참석 인원이 줄어들었고, 섬겨왔던 마을에서도 자신들이 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였다. 셋째, 어떤 이는 전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역이 위축되었다. 넷째, 어떤 이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던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이 안전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선교지를 옮김으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었다. 여섯째, 방문 사역의 지속성이 어려워져서 사역이 위축되었다. 일곱째, 정부의 압력 때문이다. 어떤 이는 어린이 센터를 통해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시기부터 정부의 압력과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그들의 보안이 더욱 강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여덟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이 줄어들었다. 어떤 이는 환율로 인한 사역비 감소와 프로그램의 참석 인원이 줄어들어 사역을 축소시켰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기존의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역을 줄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학교사역의 경우 재정 문제 때문에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출석인원 감소와 재정 부족으로 교회 내외 활동을 축소하였다. 다른 이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스텝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사역비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후원교회의 헌금이 상당히 줄고 후원금이 반으로 줄어들어 사역이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아홉째,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어떤 이는 3년의 공백을 메꾸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동안 아이들은 코란 학교와 가정에서 중단없이 코란을 듣고 배웠지만, 자신들은 모임이 중단된 채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기간이었다고 하였다. 열째, 사람을 만나는 접근성이 어려워졌다. 어떤 이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자유롭게 못한 분위기 조성이 관심을 받아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열한째, 교회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위축되어서 신학생 모집과 교육에 어려움이 생겼다. 열두째,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쌓아왔던 신앙 훈련과 학업 및 인성 훈련이 팬데믹 이후 학교 수업이 중단된 후 기숙사도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초점을 잃게 되었다고 하였다.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응답한 사역자들은 확장된 사역과 새로운 사역 케이스들을 다음과 설명하였다.

1) 확장된 사역들

케이스 1 :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활동과 대중적 사역은 줄었으나 교사 사역자를 양육하

는 사역은 오히려 질적으로 좋아졌다.

- 케이스 2 : 팬데믹으로 전도 및 모임이 위축되었지만 지금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 케이스 3 : 코로나 이후 그동안 밀려 있던 사역들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 케이스 4 : 팬데믹으로 중단되었을 뻔했던 경건의 시간을 SNS그룹방에서 전교인이 시작 하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 케이스 5 : 새로운 사람들과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
- 케이스 6 : 하나님을 팬데믹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복음에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아닌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셨다. 늘 만나고 섬기는 영혼들이 마음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늘 새롭게 부어지고 있다.
- 케이스 7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접촉대상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구제하고 또한 모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 케이스 8 : 제자로 훈련 받은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초교파적으로 산지 부족 교회를 연합하여 자민족 부족 선교회를 만들고 팬데믹 기간에도 매일 선교하여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 케이스 9 : 현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사역이 유입된 무슬림 노동자들에게도 확장되었다.
- 케이스 10 :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과 더 신실하게 깊이 있는 만남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 케이스 11 : 코로나로 멈춰 있었던 어린이 출판 사역이 각 국가별로 다시 시작되고 콘텐츠 개발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 케이스 12 : 온라인 사역과 팬데믹 이후 사역 중에 어린이 예배 콘텐츠 공유 플랫폼 사역이 넓어졌다.
- 케이스 13 : 전도와 교회 세우는 단계에서 지도자 양성과 승법번식 가능한 제자양육으로 확장되었다.
- 케이스 14 : 제빵 비즈니스로 기존 사역이 확장되었다.
- 케이스 15 : 스포츠 사역과 같이 중단되었던 사역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친구들을 온라인 새벽 예배에 이끌 수 있게 되었다.
- 케이스 16 :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와 모임을 멈추지 않고 모였기에 교회가 성장하였다.
- 케이스 17 : 한국열풍으로 인하여 청소년, 청년 대상의 사역들이 많이 늘어났다.

케이스 18 : 많은 사람들과 의사 소통이 원활해졌고 관계가 넓어졌다.

- 케이스 19 : 사역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
- 케이스 20 : 오프라인 모임 위주에서 온라인 모임으로 사역 확장되었다. 오프라인 전도 사역 위주에서 온라인 전도 사역으로 확장되었다.
- 케이스 21 : 온라인 신학교육의 새 지평이 열렸고, 온라인으로 신학교육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분위기와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 케이스 22 : 지역 교회 협력을 통한 무슬림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선교지원센터 건축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케이스 23 : 온라인 공동체가 세워졌다.
- 케이스 24 : 신학생들과 교수진들이 확장되었다.
- 케이스 25 : 옛날에는 주 몇 회만 모였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제자 부부와 대면/비대면으로 매일 기도모임을 이어갈 수 있었다.
- 케이스 26 : 기존 사역에 온라인 사역이 더해졌다.
- 케이스 27 : 화상으로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새롭게 시작된 사역들

- 케이스 1 : 어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었다가 회복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청소년들이 팬데믹 기간에 학업과 외부통행금지 때문에 동네안에 갇히게 된 후에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동시에 인터넷 쪽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후에 팬데믹이 풀리면서 인터넷 쪽으로 대거 쏠리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다. 교회는 팬데믹 기간에 인터넷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시에 헌신된 교인들과 그냥 모이는 교인들을 더 잘 구분하게 되고 거기에 대처한 사역을 개발해 왔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활용과 동시에 개인그룹, 소그룹, 연합 훈련을 잘 활용하여 제자양육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케이스 2 : 중국에서 종교적 박해로 인해 중국 사역을 접고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겨 타이베이 도심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여 시작하였다.
- 케이스 3 : 신학교 연장 교육, QT훈련, 희망도서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 케이스 4 : 모임이 더 소그룹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 케이스 5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및 센터운동을 통해 미전도종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회들이 넓혀지고 있다.

케이스 6 : 교회 내외적으로 새로운 필요가 생겨나서 영어성경공부 등과 같은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케이스 7 : 예정되었던 교회 이양을 현지인 교인과 사역자에게 잘 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점점 전도의 접촉점이 없어지는 상황에 공립학교안으로 들어가서 방과 후 학교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에 유익한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청소년들을 학교 안에서 만나고 전도하고 있다.

케이스 8 : 연합사역은 침례교 동료 선교사님들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정기적인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팬데믹 기간동안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지를 함께 고민하였다. 이에 대면모임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 교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기간 내내 매일 큐티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매일 큐티 영상설교 보내주는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엔데믹이 된 상황에 무너진 교회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욱 연합하여 매년 열리는 청소년 연합 수련회 전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했던 온라인 연합 예배가 엔데믹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연합 축구 전도 사역이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케이스 9 : 빈곤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구제 사역과 빈곤탈피를 위해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케이스 10 : 줌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줌 강의 이후에 개인 양육과 신학교 학생 수가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케이스 11 : 공립학교 교사 사역자를 성서적 세계관으로 양육하는 사역은 팬데믹을 통하여 가택근무가 가능해져 교사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사상과 변증훈련을 교사들 대상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사역을 이끌고 갈 다음세대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다.

케이스 12 : 비접촉 미전도 종족마을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케이스 13 : 구제기금 단체와 연결되어 지역 사람들과 음식 나눔을 통한 구제 사역이 시작되었다.

케이스 14 : 중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중국으로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코로나 19 기간에 대만으로 왔고, Zoom으로 사역이 시작되면서 중국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사역들이 열리게 되었다. 전국에 흩어진 사역들의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해외 화교들과 연결되어 전 세계 화교 고난주간 기도회가 3회까지 진행되면서 화교권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들의

모임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단체가 만들어 졌고, 내년 고난 주간에 제4회 전세계 고난주간 기도회를 준비 중이고 각 나라의 현지교회 사역자들과 연결되어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도회를 참석했던 중국 대륙의 성도들의 연결되면서 “24시간 파수꾼 기도회”가 24시간 매시간 진행되고 있으며, 내가 담당할 시간은 매일 새벽 5-6시까지이며, 매일 300여명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봉천 사역도 매일 12:30분에 봉천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각 중 훈련들이 Zoom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신자를 위한 훈련으로 알파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Zoom이 매우 효과적이며 이번주부터 제8기 행복 알파가 진행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봉천은 새벽 6부터 저녁 11시까지 자체 Zoom방송을 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와 생명의 삶을 볼 수 있고, 어느 교회나 들어와 소그룹 할 수 있는 3개의 방이 있고, 3개의 성경공부방이 있고, 리더 훈련을 위한 방에서 매일 새로운 주제로 훈련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역의 확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인데, 매우 사역을 극대화하고 있다.

케이스 15 : 집에서 ETI영어반을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며 그들의 부모와 관계 맺기를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케이스 16 : 사회개발 프로그램으로 지역 정부와 협의하여 시립대학에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케이스 17 : 현지인들을 방문하고 치료하며 전하던 일들이 줄어들었지만, 현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케이스 18 : 이전에는 문화 사역이나 관계 전도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어 고심하던 차에 온라인 전도 사역을 소개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 지역에 효과적인 사역임을 확신하고 있다.

케이스 19 :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역을 정비하고 예배와 말씀사역, 어린이 사역 활동들(바이블스토리, 그림, 우쿨렐레, 농사, 댄싱, 켈레티)과 같은 새로운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케이스 20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변국인 폴란드로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다음세대)이 시작되었고, 폴란드 현지인 다음세대 사역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

케이스 21 :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역이 많아졌다. 이전의 한 선교사의 역량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스 21 : 난민 선교와 다민족 사역이 시작되었다.

케이스 22 : 전쟁으로 온 고려인 사역이 시작되고 지도자 훈련이 시작되었다.

케이스 23 : 신학교 연계를 통해 정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케이스 24 : 신학교와 연합을 통해 정규 학위와 학과과정이 증가되었다.

그림 6은 팬데믹 이후에 사역전략상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를 부여 주고 있다.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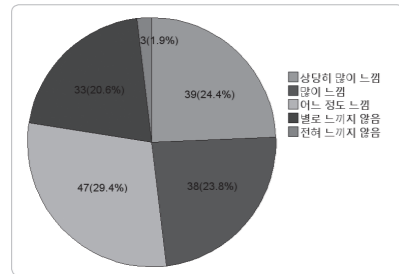


그림 6. 팬데믹 이후에 사역전략상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답자의 50.0%가 상당히 많이 혹은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느끼는 사람의 비율도 30.6%나 되었다. 반면에, 19.4% 정도가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0명 중에 8명 정도(80.6%)가 엔데믹 시대에 사역 전략적인 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는 사역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생활적인 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여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왔다. 대략적으로 열명 중에 8명 정도(77.5%)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지의 심한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후원금의 감소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사역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이는 교회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매달 백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상 어려움이 높게 나왔는데, 5명 중에 1명 정도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교육의 어려움(6.9%)과 안정상 어려움(5.0%)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3.1%이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어려움에는 비자의 어려움, 민족주의 강화 문제, 종교정책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 심한 환율 변동의 문제, 한국 교회 후원 요청 방문의 어려움, 복음 수용성이 낮은 문제, 자주 개편되는 법률로 인한 행정처리의 어려움, 현지인들의 수동적인 태도와 건강상의 이유로 모임 참여를 기피하는 문제, 실력 있는 선생님이 떠남으로 인한 교육 질의 저하 문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 예배 출석 인원의 감소 문제, 대면 만남을 꺼려하고 SNS를 통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경향, IT 분야에서 기술적인 한계 등이 언급되었다.

생활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생활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경제적 어려움	124	57.4%	77.5%	안전상 어려움	8	3.7%	5.0%
자녀교육의 어려움	11	5.1%	6.9%	어려움 느끼지 않음	21	9.7%	13.1%
건강상 어려움	35	16.2%	21.9%	기타	17	7.9%	10.6%
전 체					216	100.0%	135.0%

표 4. 팬데믹 이후에 생활적인 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표 5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응답자의 10명 중에 6명 정도(56.2%)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력 저하(43.8%)가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면역력 저하(29.4%), 수면의 질 저하(15.6%), 호흡기 질환(9.4%), 감각 기능 저하(5.6%), 식욕 저하(5.0%) 순으로 나왔다. 식욕 저하의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 중에 한 사람은 그동안 잘 먹던 음식들 중에 특유의 냄새로 인해 못 먹게 된 음식이 많이 생겼다고 하였다. 10명 중에 4명은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기타에는 약간의 의기소침, 눈의 섬광현상, 고혈압과 심장통증 등이 포함되었다.

건강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건강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호흡기 질환	15	6.1%	9.4%	수면의 질 저하	25	10.2%	15.6%
면역력 저하	47	19.3%	29.4%	식욕 저하	8	3.3%	5.0%
체력 저하	70	28.7%	43.8%	별다른 어려움 느끼지 않음	64	26.2%	40.0%
감각 기능 저하	9	3.7%	5.6%	기타	6	2.5%	3.8%
전 체					244	100.0%	152.5%

표 5.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상 겪고 있는 어려움들

표 6은 팬데믹 이후에 정서적인 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54.4%가 여러 형태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25.6%)와 무기력감(21.3%)가 가장 두드러진 감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감의 결여(13.1%), 불안감(10.0%), 주의력 결여(8.8%), 심한 감정 기복(8.8%), 우울감(6.9%), 지루함(5.6%), 두려움(4.4%), 좌절감(3.1%) 등의 순서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타에는 고립감,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 성장에 대한 염려,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자주 지치는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과 염려, 팬데믹과 무관하게 느끼는 노화 현상, 영적 전쟁 등이 들어있다. 어떤 이는 타국에서 추방된 후 오자마자 받

생한 팬데믹으로 정서적 건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정서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정서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무기력감	34	13.9%	21.3%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	41	16.7%	25.6%
우울감	11	4.5%	6.9%	주의력 결여	14	5.7%	8.8%
심한 감정 기복	14	5.7%	8.8%	자신감의 결여	21	8.6%	13.1%
불안감	16	6.5%	10.0%	지루함	9	3.7%	5.6%
두려움	7	2.9%	4.4%	어려움 느끼지 않음	64	26.1%	40.0%
좌절감	5	2.0%	3.1%	기타	9	3.7%	5.6%
전 체					245	100.0%	153.1%

표 6. 팬데믹 이후에 정서적인 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표7은 팬데믹 이후에 사역자들이 느끼고 있는 관계적인 면에서의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응답자의 5명 중에 1명 정도(20.6%)는 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료사역자와의 잦은 갈등(7.5%)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높은 것은 현지인과의 잦은 갈등(5.6%)이었다. 그 다음으로, 잦은 부부 갈등(5.0%), 파송 교회와의 갈등(3.8%), 자녀들과 잦은 갈등(2.5%), 본부와의 갈등(1.3%) 순으로 나왔다. 본부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어떤 이는 본부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못함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71.9%는 관계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기타 항목에는 현지교단과의 갈등, 재정 갈등, 타교단 사역자들의 텃세로 인한 약간의 갈등, 무기력감에 대한 갈등, 후원교회와 소통의 문제, 전반적인 관계의 위축됨, 한국에 교회와 후원자와 깊이 있는 만남의 어려움, 개인 시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만남의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어려움, 사역지가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관계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관계상 어려움의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자녀들과 잦은 갈등	4	2.4%	2.5%	본부와의 갈등	2	1.2%	1.3%
동료사역자와 잦은 갈등	12	7.1%	7.5%	파송 교회와의 갈등	6	3.6%	3.8%
잦은 부부 갈등	8	4.8%	5.0%	어려움 느끼지 않음	115	68.5%	71.9%
현지인과의 잦은 갈등	9	5.4%	5.6%	기타	12	7.1%	7.5%
전 체					245	100.0%	153.1%

표 7. 팬데믹 이후에 관계적인 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표 8은 사역자들이 평소에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취했던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역자의 대부분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적응하기 위해서 시사 프로그램 시청(74.4%), 유튜브 시청(68.8%), 국제 뉴스 시청(63.1%), 현지 뉴스 시청(45.6%)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 강의 들음(35.0%), 전문 서적 읽음(28.1%), 신문 기사 읽음(26.9%), 세미나 참석(25.0%), 시사 잡지 읽음(13.1%) 등의 방법으로도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을 3.8% 밖에 되지 않았다. 기타 항목에는 영적 관리에 특별히 힘씀, 자기 계발(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위취득, 자격증 취득 등), 깊은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참석,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젊은이들을 만나 교제하려는 노력,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에 전념함, 선교학 수업을 들음, SNS 체크, 글쓰기와 시대에 맞는 연구 자료 작성 및 번역, 예수님처럼 살려는 노력,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대처 방안을 질문함 등이 언급되었다.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 노력들	반응		케이스 중 %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 노력들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현지 뉴스 시청	73	11.7%	45.6%	전문가 강의 들음	56	8.9%	35.0%
국제 뉴스 시청	101	16.1%	63.1%	세미나 참석	40	6.4%	25.0%
시사 프로그램 시청	119	19.0%	74.4%	전문서적 읽음	45	7.2%	28.1%
시사 잡지 읽음	21	3.4%	13.1%	별다른 노력하지 않음	6	1.0%	3.8%
신문 기사 읽음	43	6.9%	26.9%	기타	12	1.9%	7.5%
유튜브 시청	110	17.6%	68.8%				
전 체					626	100.0%	391.3%

표 8.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노력들

그림 7은 본인은 시대 변화에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33.8% 정도가 상당히 잘 대처하거나 비교적 잘 대처한다고 하였다. 56.3%는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10명 중에 9명이 시대의 변화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별도 대처하지 않거나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10.0%에 지나지 않았다. FMB 사역자의 대부분은 표 8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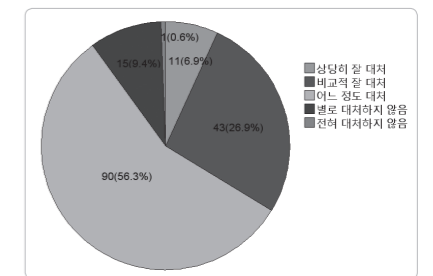


그림 7. 시대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정도

표 9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IT 기술 관련 툴(tools)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SNS 메신저(73.8%)와 유튜브(65.0%)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튜브와 관련해서, 어떤 이는 팀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사역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41.9%)와 페이스 북(트위터, 인스타그램 등)(40.6%)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AI(ChatGPT)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었다(16.3%). TV 방송국(5.0%), 메타버스(3.8%), 라디오 방송국(1.3%)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기타에는 Zoom, Zoom 방송국, 네이버 블로그 등이 포함되었다. 어떤 이는 Zoom을 활용하여 지도자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보안을 고려해서 노출을 상대적으로 줄이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활용 중인 IT 툴즈 (Tools)	반응		케이스 중 %	활용 중인 IT 툴즈 (Tools)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인터넷 홈페이지	67	16,7%	41,9%	TV 방송국	8	2,0%	5,0%
유튜브	104	25,9%	65,0%	메타버스	6	1,5%	3,8%
페이스 북(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65	16,2%	40,6%	AI(ChatGPT)	26	6,5%	16,3%
메신저	118	29,4%	73,8%	기타	5	1,2%	3,1%
라디오 방송국	2	0,5%	1,3%				
전 체					401	100,0%	250,6%

표 9. 활용하고 있는 IT 기술 관련 도구들(t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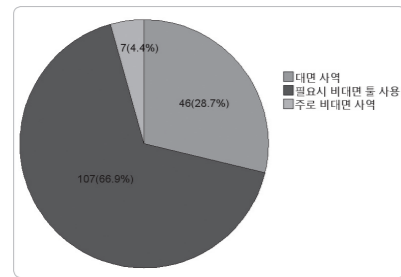


그림 8. 대면과 비대면 사역을 활용하는 비율

그림 8은 사역자들이 대면과 비대면 사역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면 사역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8.7%이었다. 필요시 비대면 툴을 사용하는 경우는 66.9%에 달하였다. 주로 비대면 사역만 감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4.4%에 지나지 않았다. 비대면 사역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표 10은 가상 공간 사역을 위해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contents)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반 정도(53.7%)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46.3%)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양육 관련 주제들(28.7%)과 찬양(뮤직 비디오)(23.8%)이다. 다음으로 현지인 구원 간증들(15.0%), 전도 시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한 답(11.3%), 현지인들이 제기하는 신학관련 주제들(10.0%), 양육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5.6%)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타 항목에 언급된 콘텐츠는 신학교 강의

자료, 어린이 성경, 음악교육관련 자료, 어린이/청소년 큐티 설교 영상(페이스북 페이지), 요셉중앙학교 어린이 큐티 영상(유튜브 학교 채널), 자막 있는 설교 동영상, 교육 신학 자료들 및 어린이 성경 학교 활동 자료, 성경대학교 강의 스트리밍, 교사 세미나 자료, 사역자 미팅 자료, 사역에 필요한 자료들, 강의 자료, 세미나 자료, 성경말씀 구절, 관심주제에 관한 영적 답변 영상, 시골지역 방문 사역 사진 및 동영상, 현지의 선교역사 자료, 현지의 역사 자료, 현지의 불교 세계관 자료, 현지인의 가치관 자료, 중보기도사역 자료, 예배와 말씀 콘텐츠, 온라인 강의 자료, 성경통독, 말씀 묵상 훈련 등이었다. 어떤 이는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아직 사용하지 않으나 필요를 느끼고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필요한 자료들은 직접 보내준다고 하였다. 다른 이는 SNS방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보이스 룸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는 콘텐츠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는 콘텐츠 종류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현지인 구원 간증들	24	9,8%	15,0%	현지인들이 제기하는 신학관련 주제들	16	6,5%	10,0%
찬양(뮤직 비디오)	38	15,5%	23,8%	양육 관련 주제들	46	18,8%	28,7%
전도 시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한 답	18	7,3%	11,3%	따로 없음	74	30,2%	46,3%
양육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	9	3,7%	5,6%	기타	20	8,2%	12,5%
전 체					245	100,0%	153,1%

표 10. 가상 공간 사역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

4. 본부와 부설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1) 본부에 대한 요구 사항

표 11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역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부가 지원해 주기 원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43.4%)가 '사역 환경 변화와 대처 방안 관련 정보 제공'을 원하였다. 다음으로 '사역에 필요한 IT 기술 구체적인 적용 지원'(34.6%), '사역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립'(32.7%)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으로 'IT 기술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정보 제공'(29.6%), 'IT 기술을 활용한 사역 플랫폼 구축 및 지원'(26.4%), '사역 환경 변화와 대처 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23.3%), 'IT 기술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20.8%) 순으로 원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소식지를 통해 전달, 함께 사역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필요, IT적용 사례 발표와 사역자 네트워크 형성, 재정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어떤 이는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본부 지원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기 원한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본부는 팀즈(Teams) 같은 변화를 가져가지만 사용자로서는 흡족하지 않고 사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도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다른 이는 “IT를 사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본부가 지원해 주기 원하는 영역	반응		케이스 중 %	본부가 지원해 주기 원하는 영역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지역 환경 변화와 대처 방안 관련 정보 제공	69	20.1%	43.4%	지역에 필요한 IT 기술 구체적인 적용 지원	55	16.0%	34.6%
지역 환경 변화와 대처 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37	10.8%	23.3%	IT 기술을 활용한 지역 플랫폼 구축 및 지원	42	12.2%	26.4%
IT 기술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정보 제공	47	13.7%	29.6%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립	52	15.2%	32.7%
IT 기술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33	9.6%	20.8%	기타	8	2.3%	5.0%
전 체					343	100.0%	215.7%

표 11. 지역 환경의 변화 대처를 위해 본부가 지원해 주기 원하는 영역

지역자들이 기술한 본부에 바라는 내용을 행정, 멤버 케어, 현장과의 의사소통, 선교 동원과 선교사 훈련, 현장 사역 지원, 본부에 대한 감사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행정 : 현장 사역자에게 맞춘 행정, 사역지의 특징과 사역의 대상 및 상황에 맞는 정책 적용, 대외 및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과 문서의 틀 마련, 자율성과 융통성 있는 규정 적용, 국내 입국 행정 절차 단순화 및 파송 교회 승인 시 파송 선교사 귀국 시 거처 및 차량 제공, 본부 사역자 및 행정 간사 충원 및 재정 지원, 현지교단과 바른 관계 정립, 구체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부의 재정 모금을 통한 선교사 행정비 공제 비율 줄임, 본부 간사들의 지부 이해도 재고, 현장 사역자에게 필요한 지적 사항과 권면 사항 전달, 보고 체계 단순화, 담당 간사를 통한 행정 업무로 채널 단일화, 한국 방문 시 적극 협조, 본부의 정책이나 필드 관련 규정집 개인 송부, 명확한 사역 메뉴얼 혹은 선교사 사역 내규 제공, 국내 장기 체류 선교사 국내 소속으로 정리 등등.
- (2) 멤버 케어 : 멤버 케어(건강, 정서적) 역량 강화, 은퇴선교사의 노후준비 교육강화, 선교사 자녀 심리상담, 선교사 자녀 신앙상담, 선교사 연금 제공, 건강상담안내, 은퇴 후 사역안내 및 플랫폼 구성, MK 장학금 연결, 현장방문 및 온라인 만남을 통한 지부 사역자 격려, 현장 방문 및 사역자들의 필요 파악,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사역자들의 삶

과 사역 이야기 경청, 현장 선교사 안부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협약 및 의료 지원, 매년 본부사역자들과 인사와 소개 시간 갖기 등등.

- (3) 현장과의 의사소통 : 일년에 일회 정도 권역별이 아닌 본부와 선교사 개인 면담, 신속한 의사소통, 효율성 강조와 행정 편리를 추구로 인한 현장 사역자와의 의사 소통 단절 문제 해결, 현장 중심의 결정과 의사소통, 현장과 소통의 장 마련, 팀즈 사용 불편한데 이메일로 의사 소통하기 등등.
- (4) 선교 동원과 선교사 훈련 : 청년 선교 동원과 훈련 및 재정 지원, 단기선교사 발굴 지원, 국내교회들과 침신대 학생 선교 동원,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이 확실한 자 선별 및 허입, (WMTC에 요구) 선교사로서 본이 되는 삶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강화, 철저한 단기 선교사 훈련 및 파송, 엄선된 선교사 훈련 및 파송, 지역의 전략적 배치와 신입 사역자 발굴 등등.
- (5) 현장 사역 지원 : 전문인 사역자 모임 조직(세미나, 포럼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컨퍼런스, 현장 상황 이해를 위한 노력, 후원자 매칭, 선교사들 사역관리, 최신 선교 동향 관련 정보 제공,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타지역 선교사님들의 사역 간증 들을 기회 제공, 장단기 의무적인 교육을 위한 한국방문시 재정 지원, 급변하는 유럽상황 이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 센터 설립 지원, 기도 지원, 장단기 선교사 지원, 선교지 방문을 통한 본부의 정책과 전략 소개 및 현장 사역에 필요한 지원 제공, MUT-Senior 훈련 온라인 제공, 중남미 지부 선교사 파송, 건의 사항 경청, 권역별 모임 및 멘토링 활성화 지원, 권역 별 전략회의 또는 팀 사역, 미디어 관련 자료 자원,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시대의 선교흐름 파악 기회 제공 및 각 시대와 현장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현장의 소리 경청 및 필요에 따른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 SRDC 사역 소개 및 장기 계획 수립 및 진행, 전략 연구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안과 연구 진행-본부 필요보다 현장 필요를 고려한 연구 수행, 본부중심적 사역과 현지사역자중심 사역의 거리 조정, 선교사 말씀 묵상 훈련과 설교 훈련 지도, 교단 소식 제공, 균형 잡힌 인선, 현장 사역자 중심의 현장 리서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현장과 함께 고민, 고립지역 선교사에 관심과 지원,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대한 본부의 구체적인 이해와 사역자 필요-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전략적인 배치 필요 등등.
- (5) 본부에 대한 감사 : 46명의 응답자가 현장 사역자들에 대한 본부의 사랑, 기도, 섬김, 돌봄, 수고와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한 사역자는 “적은 수의 인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시는 본부식구들을 응원해요” 라며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

2) 전략연구개발원(SRDC)에 대한 요구 사항

표 12는 앞으로 전략연구개발원(SRDC)이 해주기 원하는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전략연구개발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인 현장 사역 전략 연구 및 개발’(54.4%)을 원하였다. 다음으로 ‘전략 관련 정보 제공’(33.8%), ‘현장 상황에 적합한 본부 정책 연구 및 제안’(30.0%)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전략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현장, 온라인)(27.5%), ‘사역 사례집 발간’(25.6%), ‘권역별 전략 회의 지원’(25.6%), ‘현장 사역자 멘토링’(20.6%), ‘장단기 선교사 훈련생을 위한 전략 관련 강의’(19.4%), ‘선교사 포럼 개최’(14.4%) 순으로 나왔다. 기타 항목에는 FMB사역의 종류(분류)와 현황(그래프) 그리고 세계선교의 사역종류와 현 흐름과 트렌드, 개인의 달란트를 통한 사역방법 안내와 지원, 지부별 연합사역 전략연구 및 제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상공간, 인터넷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 방법과 툴 보급 및 지원, 소식지 발간, 전 세계 선교사들의 정보 및 유익한 사역 공유, 현장의 필요에 대한 연구조사 협조 등이 제시되었다. 어떤 이는 “탁상 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각나라에 맞는 전략은 각나라가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다른 이는 “전략 연구 개발원과의 소통을 하기 원한다. 정확히 무슨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였다.

원하는 전략연구개발원(SRDC)의 역할	반응		케이스 중 %	원하는 전략연구개발원(SRDC)의 역할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효과적인 현장 사역 전략 연구 및 개발	87	21.1%	54.4%	선교사 포럼 개최	23	5.6%	14.4%	
사역 사례집 발간	41	9.9%	25.6%	현장 사역자 멘토링	33	8.0%	20.6%	
전략 관련 정보 제공	54	13.1%	33.8%	현장 상황에 적합한 본부 정책 연구 및 제안	48	11.6%	30.0%	
전략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현장, 온라인)	44	10.7%	27.5%	권역별 전략 회의 지원	41	9.9%	25.6%	
장단기 선교사 훈련생을 위한 전략 관련 강의	31	7.5%	19.4%	기타	11	2.7%	6.9%	
전 체				401			100.0%	250.6%

표 12. 전략연구개발원(SRDC)에게 바라는 역할

3) 세계선교훈련원(WMTC)에 대한 요구 사항

표 13은 앞으로 선교 훈련 기관인 WMTC가 현장 사역자들에게 제공하기 원하는 도움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최신 선교 동향 관련 정보 제공’(56.9%)을 원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교회 선교 동원과 선교 헌신자 발굴’(36.9%), ‘장단기 선교사 훈련 강의 영상 업로드’(35.6%), ‘사역 연차별 필요에 맞는 특강 제공’(33.1%)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역 교회 선교 교육’(27.5%), ‘사역지 방문 및 멘토링’(22.5%), ‘온라인 상담’(21.3%), ‘지역 교회 선교 정책 수립 자문’(11.3%) 순으로 원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모금 활성화와 자

녀 교육에 관한 정책 방안 연구 및 제공, 현장 사역에 필요한 온라인 강의 제공, 선교사별 상황에 맞춘 해결책 및 지원책, 현장 선교사의 경험 경청, 현장 사역 점검 및 사역적인 조언, 금융 문맹 해결, 성지순례 기회제공 등이 언급되었다.

원하는 WMTC의 역할	반응		케이스 중 %	원하는 WMTC의 역할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장단기 선교사 훈련 강의 영상 업로드	57	12.8%	35.6%	지역 교회 선교 동원과 선교 헌신자 발굴	59	13.2%	36.9%	
사역지 방문 및 멘토링	36	8.1%	22.5%	지역 교회 선교 교육	44	9.8%	27.5%	
사역 연차별 필요에 맞는 특강 제공	53	11.9%	33.1%	지역 교회 선교 정책 수립 자문	18	4.0%	11.3%	
온라인 상담	34	7.6%	21.3%	지역 교회 단기 선교 교육과 지원	46	10.3%	28.7%	
최신 선교 동향 관련 정보 제공	91	20.4%	56.9%	기타	9	2.0%	5.6%	
전 체				447			100.0%	279.4%

표 13. 세계선교훈련원(WMTC)에게 바라는 역할

5. 결론

엔데믹 시대에 FMB 사역자들의 사역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현장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지원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역자의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역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비자 문제, 현지인들의 대면 예배 참석률 저조, 사람 접촉의 어려움, 현지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현지를 떠나는 문제, 반기독교적인 종교 정책으로 인한 사역의 어려움, 후원금 감소, 국외 선교 동원의 위축, 치안 불안, 교회에 대한 강한 편견, 불안감 증대, 불확실성의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56.2%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54.4%가 정서적인 문제, 20.6%가 관계적인 문제도 경험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사역 환경의 변화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거나 중단된 경우들(25.2%)도 있었다. 하지만, 사역자들의 45% 정도가 팬데믹의 도전을 이기고 사역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역자의 대부분(96.2%)은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10명 중에 8명 정도의 사역자가 엔데믹 시대에 사역 전략적인 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본부와 전략연구개발원과 세계선교훈련원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원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본부를 비롯해서 두 기관이 구체적인 사역 환경의 변화와 현장 사역자들의 처한 상황과 요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현장 사역자들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대한다.

남아 있는 중국 선교



| (D.Miss, 전 중국선교사, WMTC 부원장)
이병문 선교사

I. 들어가는 말

2018년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되었다. 물론 한번도 합법적으로 선교한 적은 없었지만 실제로 30년동안이나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출지에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선교는 끝나는 것인가?'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후 선교단체와 중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중국 선교사의 재배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정작 어려움 속에 있는 중국교회를 위해 어떤 사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¹⁾ 그리고 2019년말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은 3년간 중국선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선교사의 재배치도, 코로나-19의 영향도 끝이 났으니 남겨진 중국선교는 무엇인지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30년의 중국선교 시대가 지나가고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된지 5년이 지난 지금 할 수 있는 중국선교가 무엇인지 고찰해보려고 한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중국교회를 위해서 '남아 있는 중국선교'가 무엇인지 연구하려는 것이다.

1) GMS(합동측 총회세계선교회)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비자발적 출국(추방)된 선교사를 '하재선 선교사(하나님께서 재배치하신 선교사)'라고 불렀다. 출지에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들을 위로하기에는 좋은 단어이지만, 이제껏 사랑하고 섬겨왔던 중국교회에 대한 배려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지호길, "최근 중국 선교사 추방과 전략적 재배치에 관한 소고-GMS를 중심으로", "KMQ, 2019 봄호.

II. 중국선교의 역사 속에서 본 현 상황

중국선교의 역사는 AD635년 당대(唐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알로펜(Alopen)을 단장으로 하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선교팀이 장안(長安)에 들어오면서 중국선교가 시작되었다.²⁾ 그들은 경교(景教)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열매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선교의 열매가 보존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³⁾ 이어서 원(元)제국 시대 1294년에 몬테 콜비노(Monte Corvino)를 단장으로 하는 프란치스코회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으며, 명대(明代) 1582년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에 의해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세 번의 선교 시도는 일정한 열매가 있었으나 그것이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의 뿌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⁴⁾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07년 영국의 모리슨(Morrison)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후 200여년 동안 중국의 교회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먼저 살펴보고 싶다. 특히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아 부침을 거듭하던 근현대 중국선교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봄으로 이후의 방향을 위한 이정표로 삼으려 한다.

1. 근현대 중국선교의 역사

앞서 언급한 대로 1807년에 시작된 중국 개신교회는 200여년의 역사 동안 중국 왕조와 정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 중국교회의 역사를 크게 네 가지 시대로 나누어보았다. 첫째는 신중국(新中國; 공산화된 중국) 이전 시대(1807~1949)⁵⁾, 둘째는 공산당통치 시대(1949~1978), 셋째는 개혁개방(改革開放) 시대(1978~2013), 넷째는 중국굴기(中國崛起) 시대(2013~현재)이다. 각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

년 대	시대 구분	정치지도자	사역주도	중국교회의 모습
1807~1949	신중국 이전 시대	봉건황제	선교사	복음전파, 성경번역, 교회/목회자 세워짐 CIM에 의해 내지 선교가 시작
1949~1978	공산당통치 시대	마오쩌둥 (毛澤東)	삼자교회 가정교회	1949년 공산화, 삼자애국교회 설립 지하 가정교회 설립 및 부흥

2) 전호진, 「2008 아시아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서울: 도서출판영문, 2008), 162-175.

3) Jonathan Chao, 「중국선교핸드북(The China Mission Handbook)」(서울: 두란노, 1995), 23.

4) 강문석, 「중국대륙선교」(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5), 55-58.

5) 첫째 시대 140년(1807~1949)을 하나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시기 동안 여러 정치적, 교회 역사상의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근 반세기 동안 일어난 정치 및 종교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첫째 시대 140년을 한 시대로 구분하기로 한다.

6) 김태연 박사는 1949년 이후의 중국교회 역사를 더 세분화했다. 그는 ① 삼자애국운동 시기(1949~1966), ② 4인방 시기(1966~1976), ③ 개방 시기(1976~1984), ④ 최근단계(1984~)로 구분했다. 하지만 이는 2017년에 발표된 것으로 시진핑 정권 재집권과 종교조례 제정을 통한 상황의 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김태연, 「한국교회와 중국선교」(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159-165.

1978~2013	개혁개방 시대	덩샤오핑 (鄧小平)	농촌/도시 가정교회	가정교회의 반공개화 및 부흥 가정교회의 도시 진출
2013~현재	중국굴기 시대	시진핑 (習近平)명	도시 가정교회	정부에 의한 교회의 탄압 정부 통제 하의 교회

표 1 중국 근현대 교회의 네 시대와 특징

1) 해방 이전 시대의 중국교회(1807~1949)⁷⁾

중국 개신교 선교는 1807년 로버트 로리슨이 중국 마카오에 도착함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에 제약이 너무 커서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광둥성을 중심으로 성경번역, 출판사역 그리고 양밭 목사를 세우는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로버트 모리슨의 가장 큰 업적은 중국선교의 문을 열어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선교에 동참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후 1953년 허드슨 테일러(Hudson C. Talyor, 1832-1905)가 중국에 도착하면서 중국선교는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그는 해안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중국선교가 내륙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내지선교회(CIM: China Inland Mission)를 설립하여 중국 10여개 성(省)에 진출함으로 전국 사역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지선교회 선교사들은 내지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에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⁸⁾

이후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1949년까지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시대를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20세기초 중국전역에는 6,000명 이상의 서양 선교사가 사역했다. 하지만 1949년 10월 신중국이 성립될 때, 중국 인구 5.5억 명 중 순수 기독교인은 78만여명에 불과했다.⁹⁾ 이 시대는 중국 황제를 비롯한 집권 세력에 따라 교회가 큰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교회는 자생력이 없이 서구 선교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¹⁰⁾

2) 공산당통치 시대의 중국교회(1949~1978)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성립이 선포됨으로 마오쩌둥(毛澤東: 1893~1997)을 주석으로 하는

7) 서양 선교사가 주도했던 중국선교의 시기 140년에 대해 한동훈 선교사는 이 시기를 ①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준비시대(1807-1842), ② 구미 열강의 중국진출과 선교 개척 시대(1842-1860), ③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건설 시대(1860-1895), ④ 청령전쟁 이후 기독교의 발전 시대(1895-1925), ⑤ 중국선교 수난 시대(1925-1950)으로 세분하였다. 한동훈, 『중국선교 전략』(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46.

8)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은 청나라 말기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둥(山東) 지방, 화북(華北) 지역에서 의화단(義和團)이 일으킨 외세 배척 운동이다.

9) 김학관, 『중국 선교의 전망』(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39.

10) 1921년 손문(孫文: 손중산)에 의해 중화민국이 성립되어 20여년간 중국대륙을 지배했다. 손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으나, 그는 정교분리를 주장했고, 종교에 신경을 쓸만한 겨를이 없었으므로 중국선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김학관, 46-50).

공산당통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교회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왔다.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의한 반종교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였으므로, 먼저 서양 선교사를 모두 추방하였다. 다행히 중국 정부는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지는 않고, 모든 종교를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통제하에 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자애국운동(三自愛國運動)을 주도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한 교회를 '삼자교회(三自教會)'라고 하여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교회가 들어가게 된다.¹¹⁾ 삼자교회는 나름대로 신학을 정립하고 신학교를 설립하면서 중국의 공인교회로 자리 잡게 된다.

중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핍박의 시대에 생겨난 가정교회에 의해 일어난다. 서양 선교사가 모두 떠난 중국의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났다. 그들은 중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진정한 토착교회였지만 공인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이 없이 '가정교회'로 불렸다.¹²⁾ 이들은 삼자교회가 중국 공산당 정부와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것에 반발하여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기로 한 교회이다. 이들은 중국이 '죽(竹)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시절에는 가정교회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가정교회는 정부의 핍박과 문화혁명을 견디어내고 이미 천만 명이 넘는 신자가 존재하는 것이 세계 기독교에 알려져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였다.

3) 개혁개방 시대(1978~2013)

1976년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이 죽으면서 중국에는 또다시 큰 변화가 생겼다. 1998년에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이 집권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에서 탈피하게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국에 개방되고, 인민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으며, 이념보다 경제발전에 치중하게 된다. 당시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에 치중하기 위해 서방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저자세 외교를 하게 된다. 이를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숨기고 어둠을 키운다. 조용히 실력을 키운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에 따라 중국의 교회도 제한적이거나 자유가 확대되었고, 중국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된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정교회도 도시로 향하게 된다.¹³⁾ 도시에 가정교회가 자리 잡으면서 가정교회에는 수적 증가, 외국과의 교류, 고학력화, 재정적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신학의 부재, 이단의 등장, 물질주의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다. 21세

11) 김학관, 71-72.

12) 실제 중국에서 공식적인 장소가 없이 집에서 모였다고 해서, '가정교회'라고 불린다. '지하교회'나 '처소교회'는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으로 핍박 중의 교회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외국의 선교단체에서 부르던 명칭이었던 듯하다.

13) 개혁개방 시대가 마무리되는 1993년에 도시화율은 53%에 달했다.

기 초반 중국의 기독교인은 전인구의 5~6%인 7000~80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¹⁴⁾

4) 중국굴기 시대(2013~현재)

이전 세대의 중국 정치/외교의 자세를 도광양晦(韜光養晦)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의 새로운 자세를 중국굴기(中國崛起; 중국이 세계에 불쑥 솟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중국이 글로벌패권(Global hegemony)를 다투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에 맞춰 2013년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習近平; 1953~)은 이전 시대의 정치 외교의 자세를 버리고, 중국의 국력에 자신감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와의 마찰을 주저하지 않았다. 2023년에 이제까지 금기로 여겼던 3연임을 감행함에 따라 새로운 장기독재정권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종교의 정책도 개혁개방 시대와 달리 강압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5) 시진핑 이후(Post-Shi)의 시대

사실 2010년초만 해도 서방의 학자/정치인 사이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민주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심지어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그 예상과는 반대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공산주의와 인민 통제가 강화되는 정치 역행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이 시진핑 사후(死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70세를 넘긴 시진핑의 집권은 향후 10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30년대 초반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2030년대 초반 시작될 시진핑 이후 시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시진핑의 후계자가 정권을 물려받아 현재의 중국굴기, 교회탄압의 시대가 계속된다. 둘째는 중국에 광범위한 민주화가 진행되어 교회에도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 셋째는 정치 사건(쿠데타 등)으로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등장한다. 이 경우에 교회로서는 예측불가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2. 현시대(중국굴기 시대)의 중국교회 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시작된 중국의 현재 시대는 ‘중국굴기’와 ‘시진핑 정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중국교회 특성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선교의 방향/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적 특

14) 이병문, “중국 대도시의 선교적 교회 모델”,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2014), 15. 7000~8000만 중국 그리스도인 중에는 약 3000만 정도의 삼자교회 성도 및 천주교 성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정교회 성도는 4000~5000만 정도로 추정된다.

성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중진국 탈피와 도시화

중국 민족적 자신감이 용출(涌出)한 계기는 ‘2008년 올림픽’과 ‘제2의 경제 대국’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88 올림픽’과 ‘OECD 가입’으로 민족적 자긍심이 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사실 어느 나라이든 이런 정치/경제적인 계기가 국가의 자긍심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의 리더로 등장하게 한다. 중국은 2023년 현재 GDP(국내총생산)가 19.4조 달러로 26.9조 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며, 3위인 일본 4.4조 달러의 4배가 넘는다.¹⁵⁾ 물론 1인당 GDP는 13,721달러로 세계 65위에 불과하지만 1만 달러 이상을 중진국으로 분류한다면 분명히 중국은 이미 중진국에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물론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중진국에 들어서서 소비가 폭발하여, 세계 최대의 자동차와 핸드폰 시장을 형성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동남아 국가보다도 큰 경제적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스콧 로젤(Scott Rozelle)과 내털리 헬(Natalie Hell)은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을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인구 비율이 낮은 것을 들고 있다.¹⁷⁾

중국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으니 예측까지 가보려고 한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중진국에서 머물러 있을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각 경우에 정치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여 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서었다면 ‘사회주의 선진국’이라는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나라가 탄생할 것이다. 이 경우 시진핑이나 그 후계의 자리가 굳건하겠지만, 교회의 압박도 계속될 것이다. 단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국제교류의 증가로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둘째,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중국의 경제 규모로 국제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은 유지하겠지만 패권국가가 되지는 못하면서 정권 교체 등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자유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중

15) 자료 제공: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6) ADB(Asian Development Bank), Asia 2050: Realizing Asian Century, August 2011, p.4.

17) Scott Rozelle & Natalie Hell는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일부 국가(포르투갈, 한국, 대만 정도)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에 성공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고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비율이 30%에 불과하지만, OECD의 평균은 78%에 달하며,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는 거의 100%에 육박한다. 저자는 이런 국민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이 없이는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Scott Rozelle & Natalie Hell, 『보이지 않는 중국-Invisible China』(서울: 롤러코스터, 2022), 43-52.

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중진국에 머물러 있던 시진핑 정권이 끝나면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교회는 잘 인내하면서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2) 종교 통제를 위한 탄압

1949년 신중국 설립 이후 중국교회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당과 종교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종교사무조례》라는 법률로 종교를 통제해 왔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집행함으로써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들을 압박해 왔다.

물론 중국은 헌법에 근거하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¹⁸⁾ 하지만 《종교사무조례(宗教事務條例)》라는 법률로 신앙의 자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2005년 3월 시행되어 2018년 2월에 수정안이 시행되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에 압박이 심해졌다.¹⁹⁾ 이로 인해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가 극심해졌으며, 심지어 공식허가를 받는 삼자교회(三自教會)에까지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²⁰⁾ 또한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외국 선교사가 비자발적인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교회는 외국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고, 선교사가 없는 시대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언제 교회가 폐쇄될지 모르는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중국교회와 선교에는 늘 제약이 있었으나, 2018년 이후 압박의 특징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째는 전국적인 통제이다. 과거 선교사의 사역이 적발되고 추방되는 사례는 늘 있었으나 언제 단건(單件)에 불과했다. 한 도시나 성(省)에서 발생한 추방 사건으로 인해 다른 성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종교 관련업무를 통전부(통일전선공작부-한국의 국가정보원)으로 흡수함에 따라 종교관리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제가 벌어지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²¹⁾ 둘째,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모두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전까지는 통제는 늘 가정교회가 대상이었고 삼자교회는 합법의 그늘 아래 보호되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삼자교회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오히려 존재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등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셋째, 종교활동 장소에 통제를 집중한다. 많은 가정교회가 모임 장소를 폐쇄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18)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신앙의 자유)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第三十六条(信教自由) 中华人民共和国人民有宗教信仰自由!)"

19) 김광성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에 나타난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로잔운동의 관계성 고찰' 『복음과 선교』(2017, Vol.38), 13-39.

20) 한동훈, 『중국선교전략』(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23.

21) 윤양, '중국 상황 변화와 2023년 중국선교 그리고 선교중국의 길은' 『중국을 주제로』(2023, Vol. 235).

졌다. 따라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교회는 장소를 옮기거나 작은 규모로 축소하여 예배를 유지해 나갔다.²²⁾ 넷째, 과거와 다르게 '사이버 통제'가 강화되었다. 실제적인 예배의 장소와 함께 인터넷 집회나 SNS를 통제하거나 폐쇄해버린다.²³⁾ 다섯째, 사역자와 성도에게 징역을 살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치는 않다. 불법 집회로 불려가 조사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거나 장기간 구금을 받은 가정교회 지도자는 많지 않다. 이는 천만다행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살아 있으면 이후의 시대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회의 생존 모드

선교사가 없는 중국교회가 처음은 아니다. 1949년 신중국이 설립되었을 때 중국교회는 이미 선교사가 없는 교회를 경험해 보았다. 더욱이 당시 100만이 안 되는 기독교와 지금 1억에 육박하는 중국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전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온 중국교회가 이번 어려움도 능히 견디어 낼 것이다. 사실 유대인들의 포로기간 동안 이전의 성전(聖殿)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인 '회당(會堂)'이 만들어지고, 중국공산당 통치기간 동안 생존력이 강한 '가정교회'가 만들어졌듯이 이번 기간에도 각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중국교회가 추진했던 선교운동이나 국제교류 등의 대외지향적 활동을 잠시 멈추어야 할 것이다.²⁴⁾ 마치 컴퓨터의 '안전모드'와 같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되, 그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한다. 즉, 중국 가정교회가 할 수 없는 사역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다음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어둠의 기간동안 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I. 남아 있는 중국선교

중국교회가 어둠의 시기(핍박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며,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미래를 준비해야

22) 실제로 중국 정부의 비공식 기독교 집회 규모의 허용선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가정교회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100명 혹은 50명 같은 허용선이 있다. 각 도시나 상황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큰 가정교회들은 이런 허용선보다 작은 규모로 축소 혹은 분할하여 모이고 있다.

23) 기독교신문, '선교특집: 한중수교 30년, 새로운 중국선교를 시작하라'(2022, 8, 11)

24) 중국은 2010대에 들어서면서 국력을 바탕으로 가정교회 선교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많은 가정교회가 국내 소수민족이나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특히 중국 가정교회에는 통일된 BTJ운동(Back to Jerusalem movement)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2010년대 중국 가정교회는 외국과 교류하면서 교단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다. 이것은 문화혁명 시절에 가정교회가 크게 부흥했듯이 중국교회가 어려움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약해지지 않고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이런 중국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선교가 해온 실수처럼 ‘한국교회가 원하는 선교’를 해서는 중국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중국교회는 지금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한국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연구해보자.

1. 중국교회의 필요

1) 어려움의 시기를 견디어냄

중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 정권하의 핍박을 견디고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중국교회, 특히 가정교회는 어느 정도 성도의 감소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서 중국교회가 도시화 되면서 상당한 기복신앙(祈福信仰)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신자들의 이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들의 이탈은 오히려 중국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부정적이지 않다.²⁵⁾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계속 헌신하고 있다면 다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중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다. 사실 중국의 사역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겸직(兼職: 이중직) 사역자가 많다. 이런 겸직사역자는 핍박 상황, 성도들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잘 견디어낼 수 있다. 정부의 표적이 되기 쉬운 대형모임을 지양하고, 열명 혹은 수십명 단위의 작은 모임을 세워서 ‘생존 모드’로 어두움의 시절을 견디어내야 한다.

2) 내적 성장을 기함

중국교회가 비록 대형 집회나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내적 성장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나 기도를 통해 일꾼을 키워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의 외부적 활동이 적을 때, 일꾼을 키우기가 오히려 적기이다. 교회는 소규모의 제자훈련과 기도회 등을 통해 일꾼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신학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역자를 키우기에 힘써야 한다.²⁶⁾

3) 이후의 상황을 연구하고 준비함

25) 필자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중국 목회자들은 핍박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정교회 지도자인 이(李)목사는 “중국에 언제 핍박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핍박이 있으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가가 드러날 것이다.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을 떠나가겠지만, 헌신된 일꾼들이 남아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할 것이다. 중국교회의 역사가 늘 그래왔다.”라고 말했다.

26) 중국에 비록 핍박이 있어서 인터넷 신학교는 여전히 가능하며,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중국인이 운영하는 신학교도 아직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교회는 생존적으로 발생한 교회라서 교회론이 약하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미래를 대비하며 교회론을 포함한 교회의 본질을 연구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을 포함하여 미래 중국교회의 모습과 바람직한 조직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시진핑 이후에 국제 기독교와 교류할 일꾼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중국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선교의 토양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그에 맞는 일꾼을 준비해야 한다.

2. 한국교회에 남아 있는 중국선교

앞서 어려움에 빠진 중국교회가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나열해보았다. 이제는 이런 필요를 가진 중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즉 남아 있는 중국선교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1) 공개된 사역

어려운 시기의 중국선교 중 하나는 그동안 한국 선교사들이 등한히 여겼던 중국교회와의 공개적인 교류이다. 중국에는 국가가 공인하고 공개된 삼자교회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교단이 중국의 삼자교회와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중국의 삼자교회가 한국의 교회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강단의 교류, 삼자신학교의 교환 교수 등의 가능성이 있다.²⁷⁾ 단, 이 경우에는 중국 사정을 잘 알고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중국 선교사 출신의 목회자가 나서야 하겠지만, 비공개 사역과는 분리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공개 사역하는 선교사와 비공개 사역하는 선교사는 구분하여야 한다.

2) 신학교 사역

신학교는 목회자를 직접 양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역이다. 과거에 해왔던 중국 사역자를 한국으로 불러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²⁸⁾ 하지만 중국 내에도 적지 않은 신학교가 있고, 중국 밖에도 중국교회를 위한 신학교가 있다. 우선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를 도울 수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생 방법을 터득한 신학교이므로 어설픈 도움은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강의나 강의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 밖에서 신학교

27) 필자는 20년 전 베이징에서 미국 화교교회 목사가 삼자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인도 공식적인 허락 하에 삼자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가 삼자교회와 교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28) 최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중국어 M.Div과정의 2020년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A중국신학원은 학생비자를 더 이상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B신학원도 학생모집의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광근, ‘2020년, 선교단체에게 듣는 중국선교 사역과 비전’ 『중국을 주께로』(2020, V01 209).

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강의하거나 일시적으로 출국하게 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국 내 신학교에 비해 한국 선교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크다. 이미 일부 선교단체가 중국 밖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여 중국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 중국 내 신학교는 수준을 높이기가 어려우므로 중국 밖의 신학교는 학위를 주는 정식 신학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학교에 관해서 랄프 D. 윈터(Ralph D. Winter)는 기독교 지도자훈련에 크게 세 가지의 문제에 빠지기 쉽다고 말한다. 첫째는 잘못된 학생 선발, 둘째는 잘못된 커리큘럼, 셋째는 잘못된 학위과정의 문제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학생 선발'로 졸업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자질과 소명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중국의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3) 네트워킹(Networking)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사역이 중국교회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교제권을 통해 핍박의 시기를 지내는 중국 목회자가 서로 위로하고 견디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힘든 시기에 맞는 교회의 모습, 목회의 방법 등을 서로 나눌 수도 있다. 이는 핍박 시대 이후에는 공개된 목회자 네트워크화하여 교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미 출국한 선교사들이 자신이 양육했거나 연결된 중국 사역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제주도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교제의 기회를 주고 네트워킹할 수 있다.

4) 중국의 미래 지도자 양성

핍박이 있으면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때 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예를 들어 캠퍼스 사역은 역동성이 있고,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게 되며, 해외선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핍박 상황에서 위축되기 쉽다.³⁰⁾ 이렇게 되면 미래의 일꾼 양성이 위축된다. 시진핑의 시대가 최소 1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중국 인재들을 선발하여 국외에서 좋은 신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다양한 접촉

29) 임윤택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 운동사」(고양: 예수전도단, 2013), 306-308.

30) 선교사가 대부분 추방된 이후 중국 내 캠퍼스 사역이 매우 위축되었다는 보고가 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이 어렵고 빠른 제자훈련을 요구하는 캠퍼스 사역은 해외선교사에 많이 의존하였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와 코로나-19의 문제로 대학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캠퍼스 사역이 많이 위축된 것이다.



을 통해 젊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차세대 선교사의 양성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출국하게 되자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사실 선교사가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고, 인맥이 형성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처럼 선교사가 없으면 어느 때 중국교회에 자유가 주어지고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 준비된 선교사가 없게 된다. 1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젊은 선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런 선교사를 외부에서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그곳에서 문화를 익히고 인맥을 쌓는 새로운 ‘중국통’을 키워야 한다. 그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가 상황이 변하면 중국선교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 선교사의 대안을 ‘전문인 선교사’로 보기도 한다.³¹⁾ 하지만 전문인 선교사 혹은 BAM(Business As Mission) 선교가 차세대를 준비하는 적합한 선교사라는데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직장생활 혹은 사업만 하던 일꾼이 일순간에 전임선교사로 변신이 가능할 것인가는 고려할 요인이 많다.³²⁾

VI. 나가는 말

2018년 공포된 <종교사무조례>에 의해 중국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이에 따라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선교사의 추방은 그 핍박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보다 중국교회가 홀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한국교회는 중국교회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세계에 등장하여 다른 나라의 교회와 동역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 중국선교의 많은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많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 사역을 모색하고, 신학교 사역을 통해 중국 사역자를 키우며,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중국 사역자들이 교류하도록 도우며, 방법을 찾아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또한 중국 선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차세대의 선교사를 키워내야 함을 강조했다. 예상치 못하게 중국선교가 닫혔던 것처럼 어느날 예상치 못하게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미래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한다.

31) 김태연 167-177

32) “중국에서 전문인 사역의 실제”, 『중국을 주께로』, 2003년 11-12호, 69.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계시록 3:7b)

참고 문헌

강문석. 『중국대륙선교』,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5.
김태연. 『한국교회와 중국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김학관. 『중국 선교의 전망』,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임윤택. 『알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 운동사』, 고양: 예수전도단, 2013.
전호진. 『2008 아시아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 도서출판영문, 2008.
한동훈. 『중국선교 전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Jonathan Chao. 『중국선교핸드북(The China Mission Handbook)』, 서울: 두란노, 1995.
Scott Rozelle & Natalie Hell. 『보이지 않는 중국-Invisible China』, 서울: 롤러코스터, 2022.
김광성.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에 나타난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로잔운동의 관계성 고찰, 『복음과 선교』, 2017 Vol.38.
이병문. “중국 대도시의 선교적 교회 모델”.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2014.
쑤양. “중국 상황 변화와 2023년 중국선교 그리고 선교중국의 길은”, 『중국을 주께로』(2023, Vol 235).
지호길. “최근 중국 선교사 추방과 전략적 재배치에 관한 소고-GMS를 중심으로”, 『KMQ』, 2019 봄호.
장영. “중국에서 전문인 사역의 실제”, 『중국을 주께로』, 2003년 11-12호, 69.
기독신문. “선교특집: 한중수교 30년, 새로운 중국선교를 시작하라.”(2022. 8. 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DB(Asian Development Bank), Asia 2050: Realizing Asian Century, August 2011.



뉴뱁티스트 비전캠프

한 여름의 열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2박 4일 동안 기독교한국 침례회 총회 다음세대 부흥위원회의 주관으로 대전의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2023 new baptist vision’ 캠프가 개최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600여명의 침례교 청년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았다. 특히 마지막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한국교회의 철야영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10시간 철야예배가 진행되었고 이는 우리 침례교의 청년들이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되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이근용 선교사는 “선교에 있어서 다음세대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선교 운동을 일으켜서 침례교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의미로 이번 뉴 뱁티스트 비전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2023년 뉴 뱁티스트 비전에서는 침례교단이 지난 1994년부터 진행해왔던 청년선교 운동인 ‘뱁티스트 비전’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세대, 새로운 비전(new generation, new vision)’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더크로스처치의 찬양팀인 레비스탕스가 오프닝을 맡아 참석자들이 이번 캠프를 향한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뜨겁게 달구어 주었고, 저녁집회에서는 순회선교단의 김용의 선교사가 ‘예수면 다다’라는 주제로 참석한 청년들에게 “예수가 내 삶의 진짜 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둘째 날 오전 집회에서는 디아스포라미션코리아의 조정호 목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지, 왜 그렇게 이중적인 인간들이 많은지 질문을 하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생활을 할수록 마음이 더욱 강박해져 갈 뿐이다라며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저녁집회에서는 FMB의 이사를 책임하고 있는 더크로스처치의 박호중 목사가 ‘왕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침례교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선교적인 부르심을 강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이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을 하기도 하였다. 셋째 날 오전집회에서는 FMB의 주민호 회장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카작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었고 이는 캠프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도



전이 되었다. 이후의 저녁 집회에서는 FMB 최성은 이사(지구총교회)가 초대되어 젊은이들을 선교적 비전의 길로 인도하였고, 선교에 결단하게 하였다. 실제로 이날 많은 이들이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였고, 참가한 상당수가 선교에 관한 결단서들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진행된 이번 뱁티스트 비전의 마지막 순서였던 '10시간 철야예배'는 캠프에 참석했던 침례교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대회준비위원장인 박호종 이사는 10시간 철야기도를 제안하며 한국교회가 철야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음세대가 이러한 점들을 꼭 물려받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예배가 선교의 완성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철야기도는 저녁에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구한 청년들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 서로에 대한 격려들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번 2023년 뉴뱁티스트 비전에서는 메인집회 및 CCM 콘서트 외에도 이틀에 걸쳐서 다양한 선택특강들이 펼쳐졌다. 무슬림 선교, 북한 선교, 청년 선교 등에 대해서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님들을 초청하였고, 정체성 알기 프로그램인 "디퍼런스"의 설립자 서무영 박사가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에서 널리 알려진 이준희 대표가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 FMB의 국내지부 소속으로 청주에서 러시아어권 사역을 하고 있는 문사진 선교사는 선택특강 시간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택특강에서 '단기선교'를 주제로

강의를 했던 WMTC의 이병문 부원장은 "90년대 즈음에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교에 헌신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요즘들어 다음세대의 선교적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뉴 뱁티스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침례교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선교에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이에 반응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앞으로 한국 침례교의 선교적 걸음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신재주 선교사(FMB 동원사역 총무) 인터뷰

** 4년여만에 다시 재개된 뱁티스트 비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들어 선교적 자원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이와 함께 다음세대의 선교부흥을 일으키는 일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뉴뱁티스트 비전캠프가 열리게 되어 기대가 많았는데요, 이것을 통해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총무님의 바람대로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기도사역, 선교사로서의 헌신 등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 그들을 어떻게 선교적 자원으로 키워나가실 예정인가요?*

⇒ 그들을 선교적 자원으로 키우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식들을 공유하고 더불어 대학내의 선교 동아리와 연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선교적 관심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하여 헌신한 청년들과의 일회적인 만남이나 관계보다는 그들과의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들을 케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3 뉴뱃티스트 비전을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준비를 해나가면서 다음세대의 청년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고 청년들은 그저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캠프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모임 단계에서부터 다음세대들을 초청해 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져 앞으로 진행될 뱃티스트 비전 캠프 가운데 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없으신지요?*

⇒ 캠프 준비를 시작한 초반에는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역시나 마지막에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 뱃티스트 비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단 2024 뉴뱃티스트 비전캠프를 위한 준비모임을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지만, 이번 모임을 통하여 행정적인 준비 이전에 우리 침례교 다음세대 청년들의 선교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모양의 모임들을 통하여 침례교 내에서 다음세대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이 선교적 자원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뱃티스트 비전 캠프가 행사로만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선교적 네트워크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뱃티스트 비전 캠프가 다음세대를 세워나아가는데 사용되는 일회용 행사가 아니라 그 시발점이 되어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뱃티스트 비전이 더욱 부흥하여 침례교의 다음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 제 5회 선교포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

전세계 어디로나 하루안에 이동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한 나라에 그 나라의 국민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외국인들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대략 2,245,912명의 외국인이 장단기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이러한 시대에 선교를 위해 해외를 나가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내의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FMB에서는 이주민 사역과 이스라엘 사역을 주제로 2023년 제 5회 선교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청주 아우름공동체에서 러시아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문사진 선교사의 ‘이주민 사역과 현황과 필요’, 임무열 선교사의 ‘이주민 사역의 현황과 적용’, 정영섭 선교사의 ‘센터를 통한 이주 무



1)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법무부 출입국 통계 (2022년 기준)

슬림 사역’, 김영학 선교사의 ‘Inbound Expats Mission’, 정재석 선교사와 김진남 선교사의 ‘유대인 복음화 현황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참여’, 이병문 부원장과 신기섭 총무의 ‘WMTC, 본부 행정’ 등의 주제로 발제 및 사역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FMB의 문기태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이나 가치들보다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으며, 또한 그 일을 위해 연합하며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기에 선교포럼을 열어 함께하는 선교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포럼을 개최하면서 바라는 것은 교회들이 선교를 알아가고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배우며 선교의 방향을 잡아갈 때 서로 끌어 주고 도와주는 만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1. 이주민 사역의 현황과 필요 : 국내이주민사역 GVC 글로벌비전센터, 문사진 선교사

1. 현황

국내 외국인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서울, 인천, 충남, 경남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외국인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더 나은 미래와 안정을 도모하는 가족단위의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2. 국내선교의 장점 및 어려움

선교사가 국내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 지역교회와 지역사회가 언제든지 선교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해외에 비해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있어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민족들인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측면을 가진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국내선교는 안정적으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의 역파송을 통해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기 가장 적합하고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국내선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현실이다. 일단 선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해외에서 돌아와 국내 외국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FMB에 허입된 직후 국내선교 사역에 바로 투입되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정은 문사진 선교사 가정 유일하다) 국내선교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며 많은 지역교회들이 국내선교를 하나의 선교적 형태로 인식하기 보다는 그저 하나의 특수사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3. 결론

한국도 다민족 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나가는 것 만큼이나 국내선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선교의 영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 국내선교를 통한 선교사 역파송이 필요하다.

II. 한국 디아스포라 사역의 한 사례 : 김해 파파도마 교회, 임무열 선교사

1. 몽골 현지교회 이양과 그 이후의 돌봄 : 13년간 몽골에서 사역을 한 이후 현지인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이후에도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하였다.

2. 한국에서의 디아스포라 사역 : 한국교회와의 협력속에 외국인인 많은 김해에서 김해제일교회의 몽골어 예배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아이들을 신앙안에서 돌보기 위한 선교원을 세웠고 몽골인 뿐만 아니라 6개국가의 아이들이 모집되었다. 그런데 선교원에 온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이후 고려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2022년부터는 몽골 목회자들을 위해 강해설교 세미나도 개최하여 몽골교회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3. 고려인 교회의 선교전략

- 앞마당 추수전략 :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주님의 제자로 세운다.
- 장기적인 선교전략 : 모든 세대를 전도, 리더 훈련과 사역자 개발, 소그룹 활성화
- 자립교회 세우기
-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게 하는 예배

- 현지인 교회 및 선교지와 협력
- 파송교회와 후원자 및 지방회의 지원 강화
- 이양 한다

III. 센터를 통한 국내 무슬림사역과 비전적 대안-김해 우즈벡 센터를 중심으로 : 김해 우즈벡비전센터, 요셉 선교사

현재 국내에는 30만 이상의 이주 무슬림이 있고 그 중 가장 많은 민족은 우즈벡이다. 김해에만 이슬람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약 6,027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중 우즈벡인은 2,645명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개의 이슬람 사원이 모여 있는데, 무슬림 연합회의 이름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김해시에 3,00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대형사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1. 무슬림 사역의 실제 : 국내선교를 시작하던 초기에 김해지역을 방문하여 우즈벡 근로지들과 유학생들이 모일 센터 오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후 성경공부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여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되었다.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국내에 있는 우즈베크인들은 한국내에서도 여전히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에,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만 했다. 무슬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 중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한가지는 국제심방 사역이다. 우즈베크에 있는 돌아간 이들과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상상이상의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지역연구들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김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무슬림 도시이고 김해의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바로 우즈베크인이다.

2. 전략적 교회개혁 사역 : 김해에서의 초기사역은 기도와 한글 수업으로 시작되었다. 여러 활동들을 통해 우즈베크인들과 관계를 맺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무슬림 사역이기에 일반적인 교회안에서는 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의 센터사역이 보다 효율적이다. 김해 우즈베크 비전센터도 교회 밖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에 방문하는 우즈베크 무슬림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깊은 관계가 요구된다.

3. 국내 이주 무슬림 사역의 실천적 제안 : 먼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선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철저한 현장화로 지역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 사역지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반자 선교'를 사



역의 최종목표로 삼아 섬기는 자세로 대한민국과 이주민들의 본국을 동반자로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IV. Inbound Expats Mission : 포항 국제커뮤니티, 김영학 선교사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정착하는 이주 목적이 아니라 직업, 학업, 새로운 경험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엑스팻(expatriate, 줄여서 expats)이라고 한다. 이주민과 다문화는 외국인과 자국민의 통합단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엑스팻은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며 국제도시에 잠시 체류하는 방문자의 관점이다. 인바운드 엑스팻 선교는 구심적 선교의 관점에서 전이과정을 경험하는 엑스팻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엑스팻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엑스팻은 한국 방문 외국인을 장기 정착 이주민과 구별하여 이동통과자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선교 대상임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이라는 통과지는 엑스팻에게 질서 잡힌 전이 과정 통과지로서 새로운 선교적 반응 환경을 제공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효율적인 엑스팻 선교를 위해 체류 시간과 도착 초기 시간이 중요한 선교 전략 요소임을 의미한다. 넷째, 한국사회는 여전히 자국민과 외국인으로 선명하게 분리되어 엑스팻이 내부 한국인들과의 연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다섯째, 효과적인 엑스팻 선교를 위해 방문자를 커뮤니티 중심부로 적극 환영하는 방문자 개방형 커뮤니티의 개발이 필요하다.

엑스팻은 한국을 통과하는 통과자(passenger)의 전이 단계(liminal period)에서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한다. 엑스팻은 한국 전이 과정 중 새로운 개방 전이체로 본국과는 다르게 복음에 반응하고, 본국 국가와 민족 경계선을 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동 통과자의 역동적 흐름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효과적인 엑스팻 선교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통과자 엑스팻을 중요한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선교적 만남을 도우며 성령의 역동적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적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제2차 Mission Summit 한국과 미국침례회 리더십회의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여의도 총회빌딩 13층에서는 2023년 제2차 Mission Summit이 개최되었다. IMB의 P.Chitwood 총재를 비롯하여 침례회 총회(이하 KBC)의 김인환 총회장¹⁾, 김일엽 총무 및 FMB의 주민호 회장, 문기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남침례교단과 한국 침례교단의 리더 60여명이 모여 앞으로의 선교적 협력방안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션 써밋은 ‘한국과 미국의 침례교단의 교류 및 선교 방향성 재고, 아시아 지역의 선교리더 국가로서의 과제 토의, CP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으며,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1. The Cooperative Program

The history, the process, examples of successes and failures (그동안의 역사, 진행



1) 2023년 7월 기준으로, 현재는 79대 총회장으로 이종성 목사가 취임하였다.

과정,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통한 나눔과 의논)

2. Mission in Asia

The more effective ways for Korean churches to participate in their mission in Asia (한국교회가 더 효과적으로 아시아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3. Partnership

Between IMB, CKSBCA(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and FMB(선교 현장에서 IMB, CKSBCA와 FMB의 파트너십)

이번 미션 써밋에서 FMB의 주민호 회장은 파트너십(partnership)을 주제로 ‘선교현장에서 IMB와 FMB의 파트너십(partnership between IMB and FMB)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CKSBCA의 김우준 목사가 통역을 맡아 발표하는 가운데, 주민호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FMB의 선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과 현재 IMB와 FMB의 협력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나아갈 사역 방향에 대해서 나누었다.



FMB MK 캠프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인 7월에 FMB에서는 MK들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였다.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이었던 이번 캠프는 '하나님과 썸타는ing'이라는 타이틀로 FMB의 여주봉 이사가 담임목회를 하고있는 경기도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MK캠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본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준비단계에서부터 MK들로 이루어진 리더십이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진 캠프였다는 점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풍성했던 이번 캠프에서는 그들 자신도 역시 MK인 유튜버 쉐리아 부부의 특강, MBTI검사, MK리더십이 직접 진행을 맡았던 게임순서,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한 조별 영상 발표회, FMB 국내지부의 김준영 선교사와 오현탁 MK가 대담자로 나선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찬양집회와 예배를



통해 참석한 MK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더욱 집중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날에는 각 조별로 서울투어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뮤지컬 '더북 : 성경이 된 사람들'을 단체로 관람하였고, 이후에는 각 조별로 서울의 곳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2023 FMB MK 캠프는 선교사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한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지내는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FMB는 MK들을 위해 지속적인 멤버케어 및 장학금, MK리더십 모임을 계획중이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MUT-pro. 소감

● 안주일

짧은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MUT 훈련에 참가했다. 많은 훈련의 과정들 속에서 지쳐있는 육적, 심적, 영적으로 지쳐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짧은 한국 방문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MUT 훈련 속에 힘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훈련을 통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료식, 기대했던 내 의견이 다음 훈련생들에게 감사 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래 본다.

● 강정미

MUT 훈련은 현장에서의 지치고 영적 고갈 상태인 나를 만져주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나는 눈물이 폭포수 같이 흘러 내렸었다. 그리고 기도했었다 “주님 저의 심령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2주간의 시간은 기대했던 것보다 힘들었고, 회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만큼 마음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3주에 접어들면서 상담과 멘토링 시간을 통한 만지심과 위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특히 멘토링 시간은 먼저 걸어가신 선배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만지심과, 조용한 지도 편달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진심으로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분주한 맘과, 쪼개어서 써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충실하게 훈련생들과의 교제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많이 지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애써 수고해 주신 MUT 스텝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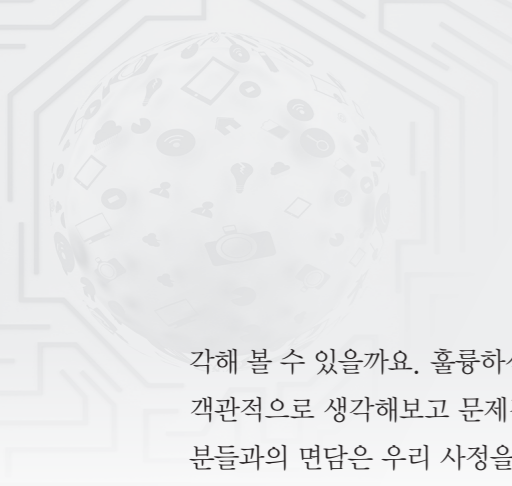
● 이민우

중국에서 기나긴 봉쇄의 터널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미 저희 부부는 건강문제, 보안문제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모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형제 자매들과 더 있어 주려고 버티고 버틴 후였습니다. 이제 떠나도 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일단 중국을 빠져나가자고 하면서 뛰쳐나간 곳이 필리핀 다바오라는 곳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한국 분이 없다는 말만 붙잡고 해발 2300미터의 티베트고원에서 저 멀리 적도까지 날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 MUT-Pro훈련이 없었다면 이런 과정들에 대해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중국에 계속 남든가, 한국에 가든가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썩듯 맞게 필리핀 다바오로 오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Half-Time을 가지면서 중국 사역자들과 차차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역을 통해 앞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함께 일할 몇몇 동역자들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 고지혜

10년 전후의 사역경험이 있는 선교사님을 위한 중간 훈련과정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떼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가족관계나 지난사역 점검, 앞으로 사역의 방향성을 집중해서 생



각해 볼 수 있을까요. 훌륭한 선배님들의 사역 스토리를 들으며 우리의 사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멘토 분들과의 면담은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통찰력 있는 실제적인 조언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죠. 신입선교사 훈련과 달리 모든 멤버가 사역지에서 수많은 경험과 현장의 고민을 가지고 계시기에 멤버들과 나눔은 흥미롭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수에는 잠비아, 남아공, 튀르키예,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시베리아, 필리핀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계셨기에 비정상회담과도 같은 기분이었지요. 또한 저희 자녀 중 현재 고1 아들, 중3 딸이 있는데 마침 진로를 고민할 시기에 입소하게 되어 적성검사, 심리검사, 상담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정리하며 진로 선택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헌신적으로 훈련을 운영해주시고 멤버들을 사랑으로 코치해주신 멘토 분들과 모든 스텝진과 강사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김동수

안식월을 준비하던 중 MUT-PRO 에 해당되는 연차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특별한 기대 없이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의 훈련생들이 모이는 것을 알고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참석하였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함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시간을 통해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멘토링을 통해 사역지와 사역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함으로 앞으로 진행 될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계획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1 년의 사역을 돌아 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수의 5 유닛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 동안의 사역과 사역중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의 사역으로 도전 받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함께할 동역자들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걱정하며 위로했던 많은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훈련원 부원장님 부부와 간사님들 그리고 멘토로 수고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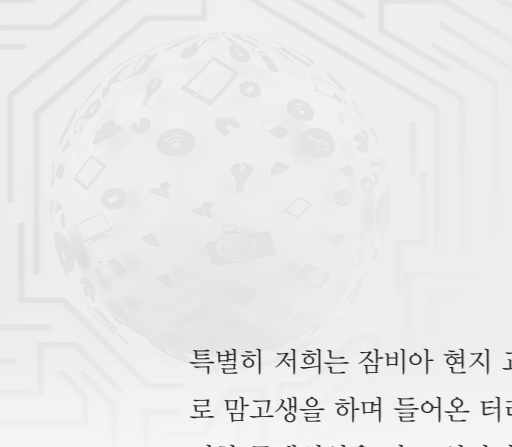
● 반희영

MUT에 스며들다...

사역지를 옮겨 3년 6개월만에 안식월을 맞아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이전 사역지와 익숙하지 않은 새 사역지에서의 우당탕탕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아주 귀한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그저 '잠시 쉬어가야지...'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이곳에서 심과 회복, 치유와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각자 스스로 챙겨 정리하기 힘든 이전 모든시간들에 대해 타임 라인을 만들며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사역방향과 목표를 수정하기도합니다. 시덥잖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는 선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선교전략들을 연구하여 서로 토론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회복,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각기 부르신곳 영적전쟁터에서 열심을 내어 싸우다가 지쳐 돌아온 우리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함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동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스텝분들과 멘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홍현기

7월 3일,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 세계선교훈련원에서 한 달간 선교사 연장훈련을 받으려고 입소하였습니다. 예정된 방문을 여는데 뜨거운 열기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순간 옆에 있는 에어컨을 켜며 더위와 싸우며 훈련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검사를 위해 5번의 테스트와 디브리핑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지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유닛이지만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가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팀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매시간 집중하며 현장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잡아가며 말씀 묵상, 가족, 부부, 자녀, 중년 건강, 심리, 그리고 사역계획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잠비아 현지 교단과 13년간 협력하며 이양 부분에서 일방적인 압력으로 맘고생을 하며 들어온 터라 이번 훈련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상담과 디브리핑, 멘토링 시간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훈련 중에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 며칠간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시간도 있었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훈련을 받았고 함께 맛있는 공동식사를 통해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훈련원 원장님과 부원장님 스텝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MUT-PRO 10년차 이상 모든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필수 훈련입니다.

● 서재현

저희는 한국에서 5월 8일에 입국하여 연희동에서 안식년의 쉼을 갖고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진행되는 선교사 연장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역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 함께 하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상처로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시점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QT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강의마다 명강의로 준비해 오신 교수님, 선교사님 그리고 FMB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훈련에 많은 상담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남편을 보게 하셨습니다. 늘 부족했던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서로가 세워주는 지체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새 중년이 되어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선교사 연장훈련은 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리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피며 천천히 오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체로 행복해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팀과 선교훈련을 인도해 주신 부원장님 부부와 스텝들 그리고 멘토로 섬겨주신 김동성 목사님 내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MUT-PRO는 모든 선교사님이 받으시면 재충전되시고 선교를 더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미옥

지난 MUT-PRO 훈련을 받은 분의 추천이 있어 이번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힘들고 외롭게 고군분투 하시는 현장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힘들어 찡찡했던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훈련을 통해 잠깐 멈추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점검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텐데 저희들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고 나누며 함께 한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에 힘을 보태주신 훈련원의 모든 분들, 멘토로 섬겨 주신 두분, 작은 것도 나누고 함께 한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MUT-PRO!



MUT-senior 소감

● 김현종 · 김경화

알마티 사역이 바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목회자 컨퍼런스를 마치고 강사님과 함께 한국 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내가 MUT훈련을 받으러 가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훈련기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더 집중하고 기대하고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의 한국을 20년 만에 보면서 아름다운 신학교 정원을 걸으며 30년 전 신학교 시절 선교에 불타던 그 시간이 생각 가운데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디브리핑을 통하여 각자를 부르신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당신이 부르신 귀한 선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슬픔 그리고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부르신 곳에서 쓰임 받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웃고 먹고 마심이 진정한 힐링이며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강사님들의 지혜와 선교사님들의 지혜는 나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가야 할 나머지 시간 인생의 타임스케줄을 그려 보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맛집을 다니며 작은 일에 소리를 내 웃으며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아픔도 듣고 좋은 소식도 들으며 내가 속한 카작 공동체가 더욱 그리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MUT훈련은 기대하지 않은 힐링과 휴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김중연 · 김경신

젊은 청년 시절 제자훈련을 받을 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제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고 주님의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2001년 파송 받기 2년 전에 3개월간 GMTC 장기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다. 그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 눈에 날선 기백이 있었던 것 같다.

선교지로 파송 받고 벌써 선교지에서 23년을 지낸 우리 부부에게는 어느덧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의 모습보다는 퇴역군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기에 senior로 불렸지만 도전의식이 많이 사라진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주님이 MUT훈련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우리 부부가 주님의 선교를 위해 다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다시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MUT(missionary upgrade training)는 더 이상 젊을 때 선교를 위한 결단과 의기로운 모습은 아닐지라도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망을 등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선교지에서의 남은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교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MUT훈련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살아온 23년의 시간보다 더 값지고 귀한 시간을 위한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훈련을 받는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선교사의 마지막은 더욱 새롭고 가치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김재기 · 박미향

2023년 10월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기대하며 대전 세계선교훈련원에 도착하였다. 아름다운 단풍이 서서히 무르익어 가는 모습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준다. 무엇보다도 천고마비의 계절인 만큼 맛있는 한국 음식을 기대하며 훈련원에 입소하였다. 훈련생들중 많은 분들이 카자흐스탄을 거쳐간 낯익은 얼굴들이라 더욱 반갑고 기쁘다.

다들 20-30년을 선교지에서 보낸 선교의 베테랑들이다. 첫 주간에 훈련생들의 디브리핑을 들으며 MUT훈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휴가도 없이 쉬지 않고 달려온 선교지에서 잠시 긴장을 풀고 동료선교사들과 교제하며 한박자 쉬어가는 마음으로 입국하신 것 같다. 나 또한 그런 마음으로 입국하였다. 대체로 나이들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보다는 선교지 출국전략을 생각해야 할 시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잘 뿌리 내리고 건강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훈련이 시작되고 부원장님의 능숙한 인도하심과 훈련생들의 여유로운 마음 가짐이 조화를 이루어 시간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숙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선교지에서 느끼지 못한 편안함과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강사님들의 강의주제는 이제 60세를 넘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관점에서 선교를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들로 채워져 있다. 무엇보다도 강의내용도 도움을 주지만 강의하러 오신 강사님들과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것 같다.

MUT 시니어 훈련은 오래전 한국을 떠나 선교지에서 젊음을 보내고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훈련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우는 지식보다는 비형식적이지만 함께 서로 교제하며 오랜시간 달려온 동료들을 격려하고 때마다 대하는 맛있는 한국음식이 머리에 흰눈이 덮여가는 이들에게는 더욱 큰 힘을 주고 마지막 남은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격려가 되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섬기주시는 모든 스탭분들과 한국 침례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 김병열 · 이미화

오랜시간... 오랜세월... 선교지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한국말이 서툴러지고... 듣는 귀가 가늘어지고 혀가 어눌하여... 걱정 반... 근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참석한 MUT 훈련이 지금은 모든 걱정 근심 그늘이 짝-거치고...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또한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의 만남은 최고의 기쁨이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는 큰 깨달음과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간사님들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 주시는 그 아름다움은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김민호 · 유성욱

우크라이나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 부부는 그동안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단기간씩 오고가며, 피로도가 높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MUT 교육이 시작되면서 65세 이전에는 언젠가 MUT훈련을 받고 싶다는 소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어 2박3일 내내 훈련에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디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최신 선교 동향과 지금 나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은퇴하기까지 어떻게 사역을 잘 마무리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장기 선교사로서 꼭 받아야 할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참석자 수가 많으신데, 우리 부부의 첫 번째 선교지가 중앙아시아였기에 오랜만에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반가웠고, 3주 동안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니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임을 더 느낄 수 있어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달려갈 사역들이 기대가 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 김길호 · 강창문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남편(김길호)과 세 자녀와 27년의 선교지의 삶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귀한 강의를 들으며 함께하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웃고, 함께 배우며 함께하는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은혜이고 감사이다.

침신대 캠퍼스 가로수 길을 걸으며 조금씩 깊어져 가는 가을과 단풍과 실개천의 산책로 길에서 만나는 따스한 가을날의 오후 햇살만으로도 평안이고 힐링이다.

그럼에도 다시금 선교사의 정체성의 회복과 소명과 부르심 앞에 잠시 머무름 속에서 진지하게 나의 사역을 돌아보며 재평가하는 시간이며 그리고 더 나은 마무리를 위한 재충전, 재정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바라며 선교지에서 끝까지 좋은 지도자로,

리더로 잘살아 내고 싶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

강의를 통하여 지금은 너무도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4차 혁명과 코로나 시대 선교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느린 몸짓, 느린 템포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MZ세대,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고민하며 다가가는 법을 그들의 언어로 반응하며 이해와 수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몸짓을 배움으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지금은 많은 선교 전략과 엄청난 선교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이 세계인구의 28%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기에 나는 오늘도 키르기스스탄에서 그들과 함께 숨 쉬며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그곳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이고 전부이며 가치이기 때문이다.

● 김기태 · 이문희

MUT-senior 훈련에 오기전에는 조금 긴장했다. 훈련이라 단체생활을 해야하고 책도 읽고 과제도 할 것 같아서 사역에 지친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쉴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기 전에 긴장은 오랜 카자흐스탄의 동료 선교사님과 안면이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풀어지기 시작했다. 역시 생사를 같이 한 동료선교사들과의 만남이 참 좋았다.

훈련이 시작되면서 3일 동안 동료선교사들의 디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20년 전 풋풋했던 동료들이 머리가 하얗게 세어 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의 세월에 순종하며 성숙되어진 이야기에 깊은 감동과 감사가 넘쳤다. 우리 서로 주님 앞에 각자 걸어온 이야기가 주님이 열방에서 일하신 증거라서 참 자랑스러웠다. 건강은 나날이 약해져도 더 아름다워진 동료들의 삶이 몸과 맘이 지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의의 방향은 20년 이상 달려오기만 내가 알지만 최근들어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직면해주었다. 우리 부부의 노후와 요즘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4차산업화와 선교지와 나



의 변화였다. 하루 하루 사역하며 스케줄을 살면서 영육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만도 힘겨웠고 사실 직면하기 싫었다. 그런데 이번 MUT시니어 훈련은 동료선교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직면하도록 해주었다. 혼자 또는 우리 부부가 각자 알아서 직면하기에는 답도 없고 서로 이견 차이만 주고 받게 되어 두렵기도 한 테마였다. 그런데 친밀한 동료선교사들 그들도 역시 나와 같은 시간대와 상황에서 직면하는 나의 현실과 사회적 현실 그리고 미래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앞에 서는 시간이 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며 평생을 살기로 하고 일어났었고 함께 사역하며 같은 영적전쟁의 전선에 있었다. 여전히 나의 노후도 사회적 현실도 나는 동료들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듯이 나도 함께 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 나라가 달라도 같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까지 같이 가는 동료들이 확인되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 훈련을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부원장님 부부와 함께 사역하는 훈련원의 동역자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선교와 인생의 망대를 마지막까지 잘 지을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이토록 행복하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권경숙

루마니아 권경숙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되어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회의적이라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앉아서 훈련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즐거운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무라서 하려고 모든 일들을 마무리 하고 한국에 왔는데 모든 것이 그 분의 시간 속에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감사했습니다. 가장 어려우실 때 함께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효도 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MUT에 대해 정말 기대가 없었고, 처음으로 안식월을 하며 마지막 사역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왔는데 MUT훈련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점사역을 시작하기 전 구체적으로 인도되는 귀한 강의와 준비를 하게 되어 높이 평가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선교사님들과의 교제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르는 선교사님들

이었지만 공감대가 같으니 빨리 친숙해졌고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끝까지 잘 경주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고인섭 · 박현희

나와 아내는 훈련 하루 전날인 10월 16일 MUT를 위해 WMTC에 입소했다. 대전을 향할 때 작은 나의 게으름이 “이 나이에 또 훈련...?”라고 왔다. 정신과 육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인 것 같다. 10여일이 지나가며 마음에 잠겨 있던 크고 작은 게으름과 타성이 하나 둘 나를 떠나는 듯 하다. 이제는 참 좋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좋다. 그들이 선교사라는 부류의 사람이라서인가 아니면 유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인가? 그냥 마음문을 열수 있는 사람들인 것 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강의는 우리로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하게 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게 한다. 종종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 하기도 하지만, MUT의 여러 강의는 다시한번 나로 믿음과 현실을 숙고하게 한다. 가끔 속일 수 없는 연령과 육신으로 힘겹지만 그 가치는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랄 것이다.

● 서나단 · 손사라

중양아시아에서 31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 나는,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UT-시니어)을 왜 4주씩이나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훈련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2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강의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룹QT 나눔과 그룹별 과제 발표 등을 통해 동료 선교사들과의 교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3주차에 침신대 선교주간에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만나 사역 간증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열매 맺는 가을을 보내게 되었다.

MUT-시니어 훈련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지에 나간지 10-15년차에 이런 훈련



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MUT-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갈등이 많고 새로운 사역의 발돋움을 하려고 도전하는 사역 10년 전후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다른 10년을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게 되었다. 4주 동안 스태프들의 배려와 섬김으로 훈련이 아닌 쉼과 충전을 받게 된것에 감사를 드린다.

● 김정수 · 양영미

50대 후반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간지 어언 9년이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늦은 나이였고 선교지에 일찍부터 나온 젊은 선배 선교사와의 어색한 만남과 자신들의 사역들을 잘 하고 있어 언제 나도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의 시기도 있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MUT Senior 훈련을 받으러 사역지를 떠나 이곳 WMTC에서 한달간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

MUT Senior 훈련은 선교사들이 65세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하면 70세까지는 은퇴시기를 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정상 교육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 현재는 가장 늦은 나이로 20~30년 이상 되신 베테랑 선교사님 부부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대충 교육만 받고 선교지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 교수님들, 그리고 배움에 참여하는 나이든 우리 선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정말로 우리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체험들이 제공되었고, 우리도 인생을 되돌아보며 선교사로서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긴장감도 갖게 되었다.

불편하지 않도록 제공되는 훈련원의 각종 시설과 교육기간 중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에게 베푸는 호의와 풍성함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사역 기간에 충성하고자 한다.

사진으로 보는 MUT-SENIOR



2023 Missionary Upgrade Training-Senior
2023.10.17-11.10



2023 Missionary Upgrade Training-Senior
2023.10.17-11.10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
언약 안에 오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2023 수확파
2023.10.17-11.10

십자가를 들고
망팔까지 우린 가리라



섬김에 대한 배움과 은혜

● 서명철 (5기 훈련생)

설득하는 아내의 권유로 기대 없이, 억지스럽게 참여했던 FMB 인턴훈련.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초반에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내비쳐 지기도 했습니다. 인턴 선교 중 미션트립 프로그램으로 김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온 많은 노동자가 모여 우즈베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노동하시는 부모님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그때에도 저는 제 아내에게 심적으로 힘들음을 표현하며 “많은 이동으로 피곤하다,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옆에서 힘든 내색도 않고, 만나는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지 고민하며 열심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간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훈련기간 동안 부정적인 마음을 내비쳤음에도 강의를 위해 섬겨 주셨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매일 함께 기도해 주셨던 간사님, 총무님의 섬김으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열렸던 것은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가까워질 때 나올 수 있는 주변의 섬김과 열정의 모습에서였습니다. 마음이 열리자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도 자라 온 곳도 모두 선교지입니다.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생각이 무뎠었고, 부모님을 통해 받은 주변의 섬김과 배려들이 때로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았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의 선교지에 비즈니스 선교센터가 설립되었을 때에도 비즈니스 센터를 통한 선교를 한다는 마음보다 저의 커리어를 위해 일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을 통해 변화된 저의 마음으로 다시 보게되는 선교지는, 이제 당연하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 실천하게 될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턴선교 훈련동안 배운 ‘섬김’, 지금껏 받고 누려만 왔던 그 섬김을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턴선교사의 섬김의 실천으로 선교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 순평화 (5기 훈련생)

저는 남편을 따라 키르기스스탄에 선교지에서 살며 현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자 선교사 부모님을 둔 MK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또 선교는 저와 동떨어진 일이라 생각하였으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전부인 마냥 일을 쫓으며 살기 바빴습니다.

인턴선교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아버님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첫 마음은 ‘그래, 선교지에 살고 있으니, 선교가 무엇인지 배워나보자!’ 하는 가볍고도 알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인턴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고, 선교적 소명 없이 타국에 살면서 현지인들을 미워하고 싸웠던,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이전의 모습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게도 동일하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훈련 기간에 제 마음이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오후, <십자가의 복음> 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림과 동시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미션트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는데, 김해에 있는 작은 우즈베키스탄 마을을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살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해에서 들었던 주일 설교는 키르기스스탄을 향한 더 큰 마음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면서도 또 사랑이 많



으셔서 의인을 찾길 원하셨습니다. 의인 한 명을 세우면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삶과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서 한 명의 의인으로 서지 못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품었던 소망은 키르기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며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뜻 대로 살았지만, 1년의 인턴 선교사역 기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시 키르기스스탄에 갑니다. 저와 남편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파송국가 : 키르기스스탄
- 파송교회 : 여의도침례교회

붙잡는 말씀과 비전 선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26절)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신다면 용서하시고 그 지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키르기스스탄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의인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의인 한사람이 세워짐으로 그 가족이, 이웃, 사회,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이 키르기스스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 부부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시도록
2. 나의 힘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3. 문화적 차이(현지인들의 생각, 행동들)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도 영혼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4.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향한 기쁨의 항해에서 행복한 전달자로

| 황범선 선교사(FMB/미얀마)

우리 가족에게 미얀마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미리 정탐조차 하지 않고 미얀마 입국이 첫 대면이었던 미얀마.

누군가에게는 황금의 땅이라 불리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버마로 아웅산 폭파 사건으로 기억되는 땅이 미얀마입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어려움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복음화가 안된 5600만이 살고 있는 인도차이나의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차이나 5개국중 가장 부한 나라였지만 공산화와 군부통치를 거치면서 지금은 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주님이 저희 가족에게 알게 하셨고 이 땅에 주님의 눈물이 머물고 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미얀마를 품고 가는 저희 가족에게 주신 마음이 '부르심을 향한 기쁨의 항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땅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에게 그 여정은 긴 항해의 시작이었



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배와 같았다. 또한 무엇보다 순종의 발걸음은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여정에 저희를 초청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이고 기쁨이었습니다.

2007년 3월 1일, 지난 선조들이 외쳤던 대한 독립의 마음으로 미얀마를 주님의 땅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해방시키겠다는 비전을 품고 아내와(김승희 선교사) 10개월 된 첫째 아들(예준)과 함께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톱카프(Topkapı)와 데린쿠유(Derinkuyu)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

미얀마는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아픔과 고난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빈부의 격차도 그러했고 이 땅을 향한 저희의 생각과 계획도 그러 했습니다. 톱카프의 박물관 같이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선교사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얼마되지 않아 저희가 가진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이 땅에서 사역하려던 캠퍼스 사역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주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들었던 데린쿠유의 지하 동굴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밝은 세상을 포기하기로 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 가려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 한 걸음씩 걷는 어린 아이과 같이 ~

그 첫 시작

1년간 양곤 외대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미얀마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7년 9월에 있었던 자스민 혁명(민주화시위)였고 두 번째는 2008년 5월에 있었던 나르기스(태풍)이었습니다. 미얀마 입국 첫해에 갑작스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비공식 수백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승려중심의 자스민 혁명은 불과 며칠이 안되 강제 진압이 되었는데 이일로 미얀마 국민들은 큰 두려움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던 승려들이 무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본 젊은이들과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 2021년 2월 사태와 이어져 더 이상 미얀마에 미래가 없어 많은 젊은이들이 미얀마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2008년 5월 공식 통계 15만명 비공식 30만명의 사망자를 발생 하게한 태풍 나르기스는 저희도 처음 경험하는 끔찍한 자연 재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뒤집어지고 집들이 날아가고 5-6미터가 넘는 바닷물의 역류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는 아픔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아시는 주님은 이 땅을 향한 또다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미얀마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후로 미얀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많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미얀마를 품고 선교사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국당시 35가정에 불과 했던 선교

사 가정이 지금은 200유닛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때 저희도 마을 한곳을 구호하면서 첫 번째 빠라미 1유치원을 2009년4월에 건축하고 마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빠라미 2 유치원을 밉글라돈 지역에 세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년들의 개종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가능한 타겟 연령을 낮춰 불교의 영향이 가장 적게 받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디아스포라 교회

‘물고기의 어부’(fishers of fish) ‘사람의 어부’(fishers of men)

2010년 저희 가족에게 미얀마에 있는 가장 오래된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공동 담임목사로의 청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아니였기에 거절을 했지만 워낙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한인교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먼저 청빙을 받으신 고신측 선교사님과 함께 공동 담임 목사로 사역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사역의 갈라도 다른 두 사역자가 공동으로 한 교회를 인도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오래 못가 공동목회는 실패할 거라 예측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인교회 영혼들을 그대로 모른척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2-3년 정도 섬기다 사임을 할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동안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3년만 생각했던 디아스포라 사역은 공동목회 5년 단독목회 7년 총 12년을 사역을 하게 되었고 최근 2023년 5월 사임을 하는 동안 저희 가정에 큰 사역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의 사역의 스토리는 너무 많아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12년간의 디아스포라

사역은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에 세워진 첫 교회. 선교사가 미얀마 땅을 밟기 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미얀마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대표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한계를 기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인큐베이팅(incubating)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도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제자양육을 통해 훈련시켜 다시 주님의 땅으로 보내는 비전, 이것이 12년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리가 아닌 것과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욕심은 주님께서 내려 놓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지만 그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사역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1월에 아내와 한인사역을 사임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한인사역과 현지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벅차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미얀마 한인교회가 이제는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하는 선교사가 아닌 오직 한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전담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해 리더십들과 이야기하고 청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목회자가 결정되어서 12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향한 기쁨의 항해에서 행복한 전달자로

2021년은 저나 저희 가족에게는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해였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던 미얀마 한인교회가 2020 코로나와 2021년 쿠데타를 겪으면서 미얀마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교회유지조차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 코로나 델타 감염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코로나와 쿠데타로 교단선교부와 많은 분들로부터 잠시 귀국하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떠나지 못해 남아 있는 교회 성도들과 사역지의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놓고 차마 떠날 수 없어서 남게 되었고 이일로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작은 힘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위해 미얀마 한인교회가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과 코로나 TF팀을 만들어 교회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약과 음식을 나누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떠나 한국에서 미얀마를 돕기 위해 보내는 구호를 나누어 줄 사람이 없을 때 감사하게 저희 가정이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시위를 하다 죽은 이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과 처참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품과 식량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안에 미얀마 현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이 땅에 현지 영혼들에게 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제 남은 사역의 시간을 온전하게 미얀마 현지인들과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잘 세워진 교회 안정적 생활을 다 포기하고 현지사역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어

리석다 말씀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저희 가정은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한인사역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사역의 규모나 화려함과 안정적인 삶은 기대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음을 알기에 새로운 도전에도 가벼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빠라미 1 교회

한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부터 현지인 예배를 유치원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약 18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는 빠라미 1 교회 건축을 위한 유치원 철거를 시작했고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긴 건축이 시작 되었습니다. 건축이 재정이 다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하루 하루 행복한 전달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지지하며 신뢰해주고 있는 아내 김승희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사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큰아들 예준이와 둘째 서진이 이들과 함께 남은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 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미전도 버마종족이 있는 가난하고 아픔이 많은 미얀마를 기억하고 기도해주세요.

미얀마에서 행복한 전달자 황범선 / 김승희 / 예준 / 서진



2024년 상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1월 - 디아스포라 선교사 시취
- 2월 - 인턴선교사 훈련
- 3월 - 정기이사회
- 6월 - 장단기 선교사 시취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 1월~2월 - 본부 정책 관련 연구 수행
- 3월~6월 - 현장 사역 사례연구

세계선교훈련원(WMTC)

2024년 상반기에는 5기 디아스포라선교사훈련, 34기 장단기 선교사훈련,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이 각각 진행됩니다. 장단기 선교사훈련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인성, 타문화이해, 사역 기술 등의 훈련을 통해 사역과 삶에 균형을 갖춘 건강한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은 현장 선교사들이 지난 사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 사회 환경과 선교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 5기 디아스포라선교사훈련

- 훈련기간 : 2024년 1월 15일 ~ 1월 26일(2주)
- 훈련대상 : FMB로 허입 될 한인디아스포라 목회자
- 훈련내용 : 한인목회의 중요성과 특성, 침례교단의 철학과 특성 이해, 가족, 전문강의 등

■ 34기 장단기 선교사훈련(신입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 훈련기간 : 2024년 3월 ~ 5월(12주)
- 훈련대상 : FMB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타 단체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 훈련내용 : 공동생활, 영성과 인성, 전문상담, 타문화 이해, 선교학, 사역기술, 선교실제 등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MUT- Professional	MUT-Senior
훈련기간	2024년 7월 ~ 8월 (5주간)	2024년 10월 ~ 11월 (4주간)
훈련대상	만 6년~12년 차 현직 FMB 선교사	55~65세 미만 현직 FMB 선교사
훈련내용	삶과 사역에 대한 평가, 사역 방향설정, 가정생활 등	공동생활, 디브리핑, 전문상담, 사역점검, 전문 강의 등

■ 인투미션 선교 교육(in2mission)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2월 ~ 3월(매주 화요일, 7주)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4월 ~ 5월(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교회 방문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
 - 기간 : 8~10주, 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대면 강의 + 과제물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학교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잡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우선순위 부여
 - 인턴선교사 훈련 자격 인정(2, 8월에 열리는 국내 타문화권 미션트립 및 전도 아웃리치 모두 참여 시 인턴선교사 최종자격 부여)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